

1990년대 이후 ‘여성 프락치’의 문학적 재현과 ‘프락치 만들기’의 역사성*

정혜진**

목차

1. 들어가며: ‘프락치 만들기’의 역사와 변혁운동의 기억
2. 신자유주의 시대 남성성과 ‘여성 프락치’의 기능
 - 2-1. 노동운동 위기론 이후 ‘위기의 외주화’: 박영근, 『김미순전』
 - 2-2.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개인화’: 이기호, 『일수록 다시 가까워지네』
3. 운동권 여성 프락치 ‘위치’의 역사화
 - 3-1. ‘운동 안의 노동’과 집합적 작명: 최윤, 『회색 눈사람』
 - 3-2. 운동권 여성의 행동양식과 명예회복의 과제: 안이희옥, 『안젤라』
4. 나가며: 문학의 기억과 색출정치

1. 들어가며: ‘프락치 만들기’의 역사와 변혁운동의 기억

이 글은 변혁운동에 대한 기억의 문학적 재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발표된 한국문학에서 ‘프락치’의 젠더를 고찰한다. ‘프락치’는 분파, 파벌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фракция’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2S1A5B5A17048748) 논문에 대한 세심한 지적과 조언 덕분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에서 비롯된 용어로, 한국에서는 주로 변혁운동을 와해하기 위해 국가가 첩자로 공작한 이들을 통칭하였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권위주의 정권기에 발생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규정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해, 2021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¹ 조사 결과, ‘프락치 강요 공작’은 박정희 정권기부터 지속된 ‘대학생 강제징집’을 토대로 하였으며, 그러한 강제징집은 다음의 네 사건·시기로 구분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① 유신 이전(1969~1971)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비롯한 반정부 학생운동에 대응하고자 발동한 위수령과 주동학생 제적 및 집단입영 조치, ② 유신체제기(1972~1979)에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해 실시한 학사행정 개입과 강제징집, ③ 신군부(1980~1981)의 계엄포고와 그 위반자들에 대한 강제징집, ④ 전두환 정권(1982~1987)이 학생운동 관련자들에게 실행한 강제징집.² 특히 전두환 정권은 강제징집된 사병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녹화공작·선도업무로써 사상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으며, 선도업무는 노태우 정권뿐 아니라 김영삼 정부(1996)에서도 지속되었다.³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프락치 강요 공작’은 징병제를 활용한 국가폭력으로서, 학원계·종교계·노동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⁴ 또한 그것은 군의 차출과 활용에 제한되지 않았고, 정부의 여러 기관(경찰(내무부), 대학 당국,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학생 민주화운동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0~2025 3권 인권침해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 144~146쪽.

2 위의 책, 148~149쪽.

3 위의 책, 157쪽, 165쪽, 171쪽.

4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진실·기억·책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을 말하다』,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자료집, 2025.11.19.

문교부, 국방부, 정보기관 등)이 협력한 국가사업이었다.⁵ 그런가 하면, 강제 징집-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학원 프락치 공작이 학생 사회에 침습하여 관계에 침투하는 폭력 기술이자, 학생들의 우정의 결속 관계를 파괴하거나 연대 자체를 일소하는 기획이었다는 연구 또한 제출된 바 있다.⁶ 국가의 프락치 공작이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시행돼 “노동자의 단결을 유린”했으며 국가권력과 노동자들 모두 노동운동 집단 내 프락치와 스파이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점도 주목되었다.⁷

이처럼 프락치 강요 공작은 징병제와 연동된 군사주의적 국가폭력으로서, 운동 세력의 연대 관계를 파괴하며 인권을 침해하였고, 군 이외의 국가기구와 결합하면서 작동 범위를 확장하였다. 노동운동에 대한 프락치 공작은 사측과 경찰, 안기부, 노동청의 협력으로 시행됐으며,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또한 군사주의적 국가폭력이 병역 제도를 넘어 사회적 파급력을 미친 사례였다. 민병래는 “여성과 군대 밖 민간인에게도 프락치 활동”이 강요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성균관대 사회심리계열 81학번 신희정이 3학년 학기 초 보안사에 의해 진양분 실로 끌려가 2박 3일 동안 ‘아방타방’ 문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프락치

5 김영희, 『봉인된 기억, ‘강제징집’이라 불리는 폭력-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생존자 구술 인터뷰를 중심으로』, 위의 책, 73쪽; 민병래, 『강독진』 공동기획, 『파괴된 청춘: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이 남긴 상처』, 원더박스, 2025, 207쪽.

6 김예림, 『우정 혹은 관계재의 파괴-학원자율화 시기의 학생운동과 ‘프락치’라는 폭력』, 『사이』 3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5.

7 허민은 이를 조명하며, 노동운동의 프락치와 스파이에 대한 인식이 노동소설에서 “집단적 주체로서의 노동자 재현의 곤경”을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해방문학』이 프락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부산노동자연합의 프락치 적발 사건,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프락치 양심선언을 보도했음을 밝혔다. 허민, 『『노동해방문학』과 노동 재현의 규율』,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 132~134쪽.

8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민주노동운동 프락치활동 양심선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1989.11.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12070> (검색일: 2025.12.02.)

강요를 당했으나 신희정이 이를 거부했음을 밝혔다.⁹

그런가 하면 1989년에는 안기부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고문 협박을 하며 프락치 공작을 했다는 폭로가 연세대, 이화여대 여대생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여대생 프락치 공작’에 대한 기사가 다수 보도된 바 있다.¹⁰ 1994년에도 경찰이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문제시되었다.¹¹ 1989년 9월 26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안기부가 “특히 여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연행해 군복을 입힌 뒤 2~4일 동안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압조사를 벌이고, 풀어진 뒤에도 공공연히 미행하며 협박해온 것”¹²이 보도되었다. 이때 여학생에 대한 안기부의 공작에 ‘군복과 ‘성고문’이 활용된 것은 프락치 공작이 병역 제도를 넘어 ‘군사주의적 남성성의 상징체계’로서 작동한 젠더 폭력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적 차원 외에도 문화적·담론적 층위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현상으로서의 ‘프락치 만들기’에 주목해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프락치 만들기’가 국가의 공작뿐 아니라 운동사회의 의심·단속·폭로와 아울러 수행되었다는 점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후반에도 대학가에는 프락치 침투에 대한 불안이 퍼져 있었고, 동급생이 프락치라는 소문이 반복적으로 돌곤 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에 들어 증폭되었다.¹³ 프락치의 양심선언 또는 폭로는 언론과 문예지에 다수 보도될 뿐 아니라 허위로 이뤄지기도 할 만큼 소위 대중적인 서사였다.¹⁴ 엄청

9 민병래, 앞의 책, 228쪽.

10 『안기부, 여대생에 프락치 강요』, 『한겨레신문』, 1989.09.26.; 『안기부 프락치 강요』 사건 평민, 국감서 규명키로』, 『한겨레신문』, 1989.09.27.; 『또 ‘성고문’ 협박과 프락치 공작인가?』, 『한겨레신문』, 1989.09.28.; 『통일의 꽃’을 약물검사 한 속셈은…』, 『한겨레신문』, 1989.10.07.

11 『경찰 노동단체 사찰』, 『한겨레신문』, 1994.11.25.

12 『안기부, 여대생에 프락치 강요』, 『한겨레신문』, 1989.09.26.

13 한홍구, 『특별연재-한홍구 교수의 ‘죽음을 죽인 한국현대사’⑤』 프락치공작: 국민은 보안사의 축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4.12.06.

난 수의 프락치와 그 담론이 양산된 시대에 프락치에 대한 방어는 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간주됐고, 프락치 운운은 운동사회 내부에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전략으로도 활용되었다.¹⁵ 그러한 상황에서 프락치로 적발되거나 오인된 이가 자백을 강요 받으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자살 시도를 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¹⁶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행위가 “프락치의 음해”¹⁷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는 ‘프락치’라는 범주가 운동사회를 규율하고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담론적으로 재생산된 ‘위협’으로서 기능하기도 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프락치 만들기’는 1970~1980년대에 ‘위장’(가명 사용, 신분 은폐, 위장취업, 비밀주의)이 운동의 중요한 전술이 되었던 정치적 환경과도 맞물려 교착적 상황을 형성했다.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운동권 내에서 보안이 중시되면서 가명이 사용된 이래¹⁸ 광주항쟁과 전두환 정권의 탄

1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15일 하오 3시쯤 서울대생 5백여 명은 서울대 아크로 폴리스 광장에 모여 가짜 대학생인 김모양(18·무직)의 『기관원 프락치활동 양심선언』을 들고 교내 시위를 벌여 한때 학교측과 경찰을 긴장시켰으나 뒤늦게 거짓말 입이 밝혀졌다.” 『女大生(여대생)행세 탄로나자 나는 機關(기관)정보원이다』, 『경향신문』, 1987.04.16.

15 『急進(급진)운동권 主思(주사)·레닌派(파)“불붙은 論爭(논쟁)”』, 『조선일보』, 1989.06.07.; 박찬수, 『NL 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인물과사상사, 2017, 161~163쪽, 250쪽.

16 서울대(1984), 연세대(1989), 부산외대(1989), 한양대(1989, 1997), 마산일꾼노동상담교육원(1990), 고려대(1994), 건국대(1996), 전남대(1997) 등에서 일어난 고문·치사 사건들은 대개 프락치 자백과 양심선언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한 양상을 띠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연세대에서의 ‘설인중 고문 치사 사건’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김정환과 여대생들의 양심선언·폭로 등으로 대학가에 프락치에 대한 불안이 심화돼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프락치 피해의식이 빚은 불상사』, 『한겨레신문』, 1989.10.18.). 프락치 공작의 진실을 밝힌 양심선언·폭로와 이를 의심·단속·낙인의 ‘근거로 삼아’ 자백을 강요한 색출정치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양심선언·폭로의 문화 속에 두 양상은 뒤섞여 있었다.

17 전희경, 『오빠는 필요 없다-진보의 거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2008, 167쪽.

18 신동호, 『긴조9호세대대담첩 (58)제2차 광화문연합시위(1)』, 『주간경향』, 2005.

압국면 이후 위장 전술이 강화되었다.¹⁹ 이러한 보안 문화가 국가와 사측의 프락치·구사대 공작과 맞물리며, 운동사회에서 경계·의심·단속이 심화되는 문화적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사측의 프락치 공작은 운동사회의 취약성을 활용하면서 그 효과를 증폭시켜나간 것이다. 1980년대의 가명 사용을 실존보다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된 시대의 표상으로 보는 시각이 김윤식²⁰의 논의 이후 이어져 왔으나, 여기에는 가명 사용을 비롯한 위장 전술이 불가피했던 협소한 정치 공간, 열악한 정치적 상황을 만든 국가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간과돼 있다. 따라서 운동사회에서 수행된 ‘프락치 만들기’를 그 교착적 상황을 독해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문학의 프락치 재현은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가? 허민은 1980년대 노동소설의 프락치 서사가 “노동자의 재사회화를 유도하고, 노동자 연대의 위기를” 해소하는 재현 전략이며, 노동자들의 “계급적 조건의 공통성을”²¹ 상기시키는 규율 기제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프락치의 문학적 재현에서 노동자의 재사회화와 연대의 조건이 되었던 ‘불완전한 협조’와 ‘용서’의 코드는²² 1990년대 이후 사라진다. 본고는 이 변화가 동구권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의 가속화 국면에서 변혁운동에 대한 기억정치가 전개되며 ‘프락치의 젠더’가 재현된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해 ‘프락치 만들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발표된 한국문학에서 변혁운동에 대한 기억과 ‘여성 프락치’가 재현된 최윤의 『희색 눈사람』

03.08.

19 『[운동권 출신 의원들 ‘가명의 추억’], 『일요신문』, 2005.03.20.

20 김윤식,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575~576쪽.

21 허민, 앞의 글, 135쪽.

22 위의 글, 134~135쪽.

(1992), 박영근의 『김미순전』(1993), 이기호의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2009), 안이희옥의 『안젤라』(2021)를 다룬다. 박영근의 시에서 199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변화가 재현되며 여성 프락치가 주문된 바를 동구권 붕괴 이후 노동운동 위기론과 관련하여 논하고, 이기호 소설이 남성 노동자와 여성 프락치, 여성 학출의 역학관계로써 노동운동사를 기억하며 금융위기 이후 청년남성의 에토스를 모색한 바에 주목한다. 최윤과 안이희옥의 소설에서 운동권 여성 프락치의 ‘위치’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비판하는 여성의 기억을 통해 역사화된 점을 조명해, 운동 안의 노동과 공동체성, 운동권 여성의 행동양식의 문제와 명예회복의 과제를 논한다. 이로써 프락치 만들기와 그에 대한 대응의 역사성을 성찰한다.

2. 신자유주의 시대 남성성과 ‘여성 프락치’의 기능

2-1. 노동운동 위기론 이후 ‘위기의 외주화’: 박영근, 『김미순전』²³

1990년대에 프락치를 문학적으로 재현한 대표적인 사례가 박영근의

²³ 이 장에서는 박영근 시의 여성 프락치 만들기의 문제성을 논하며 시에 나타난 여성의 자원화·타자화, 남성성 전락, 성폭력 재현을 비판한다. 이 글은 박영근의 시를 1990년대 초반의 정세와 맥락화하여 분석하지만, 그러한 박영근 시의 젠더의식은 그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2024년 5월, 조혜영 시인은 박영근 시인의 시집 『저 꽃이 불편하다』(2002)를 연상시키는 제목의 시집 『그 길이 불편하다』를 출간하며, 수록시 「미투」에서 박영근 시인의 성폭력(문단 데뷔, 시인 등단을 시켜주겠다고 성상납·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특히 이 시에서 조혜영 시인은 박영근을 기리며 문학상을 제정하고, 그를 진정한 노동자 시인으로 칭하며, 그의 시로 만든 노동가를 부르고, 그를 경외하면서 문학을 연구하는 문인들과 연구자들을 비판했다. 2024년 6월, 박영근시인기념사업회는 박영근의 기념사업을 중단하였고, 조혜영 시인은 기념사업회에 사과를 요청했으며, 기념사업회는 박영근 시인을 대신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과가 아닌 위로를 하였다. 또한 조혜영 시인은 박영근 작품상을 수상한 조성용 시인에게 작품상 반납을 요청하였고, 2024년 10월, 조성용 시인이 작품상 반납 의사와 조혜영 시인에 대한 연대의 입장을 SNS에 게재하였다.

시집 『김미순전』²⁴이다. 박정근은 이 시집의 연극성에 주목해 프락치 서사를 ‘비극’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프락치 ‘김미순’의 고통과 희생이 장르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작품이 비장미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미학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²⁵ 조대희는 박영근이 1987년 이후 한동안 시를 쓰지 않다가 1992년 말부터 1년간 발표한 시를 묶어 『김미순전』을 출간했다고 밝히며, 그러한 공백기는 현실 사회주의 해체에 따른 충격 때문이었지만 시집에서는 변함없는 노동현실이 강조되고 작가정신에 대한 중요한 화두가 제시됐다고 하였다.²⁶ 이 같은 선행 연구에서는 『김미순전』의 프락치 재현과 그 미학적 효과의 역사적·젠더적 맥락이 고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대 현실에 대한 박영근의 시적 대응이 왜 ‘여성 프락치’를 만드는 데로 나아갔는지 논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미순전』의 표지에는 프락치가 이미지화되어 있다. 노동조합 연대조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푸른

2025년 7월, 한국작가회의는 피해자에게 위로와 연대를 표하며 조직 내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했음을 밝히고 재발 방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 연구에서는 작품을 작가의 삶과 함께 맥락화하여 독해하는 것이 지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 문학 연구에서 작가와 작품을 분리하여 논하는 경향이야말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단 내 성폭력 고발운동이 시인의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시인의 성폭력 고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시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의 관행, 시인의 위상을 의미화하는 시문학장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문제적인 작가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작가를 만든 조건, 그가 수행한 문학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저서로는 지젤 사피로, 원은영 옮김,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이음, 2025. 박영근 시인을 고발한 조혜영 시인의 시집은 조혜영, 『그 길이 불편하다』, 푸른사상, 2024.

24 박영근, 『김미순전』, 실천문화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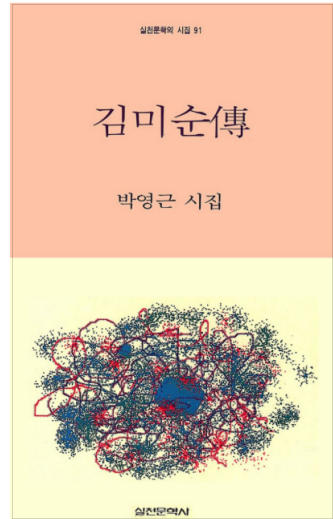
25 박정근, 「박영근의 『김미순전』에 나타난 들뢰즈적 “정동”의 연극성」, 『영주어문』 24, 영주어문학회, 2012, 212~215쪽.

26 조대희, 「노동자 출신 시인의 시세계 변모 양상 연구: 박노해·박영근·백무산을 중심으로」, 『중시대 석사학위논문』, 2018, 55~59쪽.

색²⁷ 구심점을 둘러싸고 넓게 군집을 이룬 푸른 점들의 연결망이 열리고설켜 있는 한편, 그 사이 또는 위에서 푸른 점들의 관계에 침투하며 그것을 어지럽히는 붉은 망원(網員)들의 자취가 혼란스럽게 그려져 있다. 이 시집은 노조 연대조직(지역노조, 전국조직)의 활동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위기를 프락치 표상과 서사로 풀어냈으며, 여기서 불온한 프락치는 ‘여성’으로 재현되었다.

김미순이라는 여성 노동자의 생애를 구성한 『김미순전』은 199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여성 프락치’의 자리가 주문된 맥락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 1980년대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안사와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이 시도되었음은 확인되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공작을 입증하는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 프락치의 문학적 재현은 문화적·담론적 차원의 ‘프락치 만들기’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먼저 『김미순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역단위 노조 연대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해, 1989년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창립 준비위가 결성되고, 1990년에 전노협이 창립돼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함으로써 발전적으로 해산하기까지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은 민주노조운동의 열기를 노조 전국조직에의 염원으로 집약한 시기이다.²⁸ 『김미순전』의 표제시



〈그림 1〉 『김미순전』 표지

27 『김미순전』에서 ‘푸른색’은 노동자의 작업복을 상징하는 색채이다.

28 김영수·김원·유경순·정경원, 『전노협 1990~1995 - 전노협의 창립에서 해산까지』, 한내, 2013, 98~99쪽.

『김미순전』은 “지역노조”²⁹를 직접적·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 의의를 강조하는데, 이는 박영근이 거주한 인천의 연대조직인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를 모티프로 했으며 작중 프락치 서사 역시 인노협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노협의 총파업투쟁 중이던 1989년 11월, 인노협을 파괴하기 위한 프락치 공작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변태옥(대흥기계 전 파업대장 제4지구 대장)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되었다.³⁰ 인노협은 국가와 사측의 프락치 공작을 폭로하며 “양심선언한 변태옥 동지의 신변안전”³¹의 보장을 주장했고, 총파업 이후 지구별 철야농성에서 “변태옥에게 편지쓰는 순서를 갖기도”³² 하며 “프락치가 된 노동자”³³와의 관계 회복에 힘썼다. 그런데 『김미순전』은 프락치가 처벌받고 사망하는 서사로 구성되었으며, 프락치의 성별 또한 여성으로 각색되었다. 이는 1989~1993년 사이의 정세를 담아내면서 실제 사건을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 맥락은 시집 『후기』를 통해 가늠된다.

이 시집이 씌어지는 동안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절망의 포즈들이었다. 변화한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바라보려는 인내와 통찰력 없이, 자본의 논리에 그대로 함몰이 된 지식인 언론의 예단과 흥분 속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들이야말로 운동의 침체와 함께 벽이었다. 벼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안에 그 포즈들 완강한 바 있었고 그 벽에 갇혀 비

29 박영근, 『김미순전』, 앞의 책, 91쪽 등.

30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총파업투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134?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12.02.)

31 『변태옥 양심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카이브, <https://nckkarchive.org/items/show/9030> (검색일: 2025.12.02.)

32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총파업투쟁』, 앞의 자료.

33 이승호, 『프락치가 된 노동자, 변태옥: 노동운동에 뺨친 정보공작의 전모를 듣는다』, 『노동해방문학』 8, 노동문학사, 1989.12., 280쪽.

틀거렸으니까. 참으로, 그런 과장 없이, 변화해가는 현실과 변할 수 없는 현실운동의 진보적 지향 사이에 긴장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문학하는 일의 자세가 아니던가.³⁴

인용한 「후기」에서 박영근은 “절망의 포즈들”, “변화한 것”, “자본의 논리에 유착한 지식인 언론의 예단과 흥분”, “운동의 침체”를 지적하며 동구권 붕괴와 1991년 5월 투쟁 이후 김영삼 정부하의 정세를 말한다. 동구권 붕괴와 5월 투쟁의 여파는 “민주노조운동과 전노협도 예외는 아니었”³⁵으며, 1991년 후반부터 특히 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노정추)의 ‘노동운동 위기론’과 이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내홍으로 발현되면서 고백, 청산, 변화라는 말이 퍼졌다. 또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노조 탄압 전술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내외부적 논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공장민주노조의 전노협 가입이 무산되고 전노협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한편 전노협의 전투적 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전노협 위기론’이 가시화되었다. 전노협 위기론은 전노협이 민주노조의 조직적 구심으로서 갖는 위상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1992~1993년에 본격화되어 ‘전노협 중심론’과 ‘전노협 한계론’ 중 후자로 정리되면서 이른바 전노협 정신이 청산되어 갔다고 평가된다.³⁶ 특히 시집이 출간된 1993년 말은 노동운동 위기론, 전노협 위기론과 관련해 전노협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때였다. 실제로 인노협은 변태옥에 대한 프락치 공작 사건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나아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건설을 저지하고자 하는 탄압행위”³⁷로 의미화했으며, 전노협 결성에 참여하여 전노협의 지

34 박영근, 「후기」, 앞의 책, 165쪽.

35 김영수·김원·유경순·정경원, 앞의 책, 272쪽.

36 위의 책, 220~309쪽.

37 「변태옥 양심선언」, 앞의 자료.

역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박영근은 연대조직으로서 전노협이 맞은 위기와 ‘노동운동 위기론’의 맥락에서 인노협의 프락치 사건을 재소환하면서 변용하여 『김미순전』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순전』에서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노동운동이 ‘과거’의 영예로 회상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시집의 수록시 「눈사태」의 화자는 과거에 노동조합 사무장, 선전 일꾼이었으나 “이젠”³⁸ 어쩌다 한번 집회에 나가고 거기서도 노동가를 기억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견딜과 기다림도 운동이었지만, 그것이 한계에 달했음이 화자의 아내의 눈물로써 표현되고, 화자는 전망 없는 상태를 끝내는 눈사태를 염원한다. 인용한 박영근의 「후기」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변화하는 현실을 인식하되 변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긴장’으로 굳건히 버티자며 그것이 “문학하는 일의 자세”임을 강조하였다. 현실을 외면하지도, 현실에 잠식되지도 않는 긴장감이야말로 문학적 자세라고 말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는 문학적 방법을 호출한 것이다. 그런데 그 문학적 방법은 시집에서 남성연대를 위한 ‘여성 프락치 만들기’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김미순전』은 남성연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타락-처벌-회심의 신체로서 여성 프락치를 등장시킨다.

먼저 시집의 수록시 「돌배나무」는 민중적 가치가 망각된 상황을 소비 자본주의의 변화된 현실로 재현하고, 민중성을 계승하는 남성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성연대를 만든다.

발 한두락 주면 가지, 쪽박 / 논 한마지기 팔면 가지, 쪼옥박 / 자식들 대처로
나가서는 / 비가 와도 그만 / 눈이 와도 그만 / 세월이란 것 삭정이처럼 똑똑
부러지고 // 둥치만 남아 / 까마귀똥만 슬터니 / 외숙모 돌아가셔서 장사지낼

38 박영근, 「눈사태」, 앞의 책, 11쪽.

적/ 웬 곡소리가 반가웠던지/ 다 죽은 가지 우듬지에 누우런 싹 한 치/ 한밤중
 바람 속에 몰래 띄워놓고는/ 해아침으로 참새 한 마리까지 달고 있던/ 그 돌배
 나무/ 오늘은 집자리도 돌배나무 그 자리도 아예 없으라/ 더듬는 옛 신작로
 벗나무길엔/ 이차선 아스팔트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문득 치어 나뉘는
 기억 속 옛집 돌배나무 그 자리엔/ 코카콜라병처럼 빠진 도시 계집/ 허벅지가
 햇살 튕기고 있는 광고탑 아래/ 쌀롱이며 세단들이 기름을 빨고 있는/ 호남정
 유 주유소 대리점/ 슬픔엔지 멀미엔지/ 푸르른 하늘도 들판도 눈가에 쓰라린
 데/ 외갓집 막내 내 이종형님/ 기름쟁이 마크가 뺏뺏하게 박혀 있는 작업복을
 입고/ 다 팔아먹은 세월처럼 꺼칠한 웃음으로/ 나를 부르네

— 박영근, 『돌배나무』(『김미순전』, 실천문학사, 1993, 26쪽)³⁹ 부분

‘돌배나무’는 우람한 크기의 나무로, 서리를 맞으며 자라고, 척박한
 환경과 변화에도 강한 발아력과 야생성으로 버틴다. 그 열매인 돌배는
 당도가 높지 않으며 생김새가 투박하고 까칠하나, 약효가 훌륭하며 과
 육이 치밀하고 단단하다. 인용한 시에서 돌배나무는 외갓집 뒤뜰에 등
 치만 남은 채 죽음의 순간까지 싹을 틔우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눈
 발 팔아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외롭게 살다 죽음을 맞이한 외숙모와
 겹쳐진다. 것처럼 헌신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돌배나무 등치도, 돌배나
 무가 있던 집터도 사라지고, 벗나무가 아름답던 옛 신작로에는 이차선
 아스팔트가 깔린다. 돌배나무 자리에는 이제 “코카콜라병처럼 빠진 도
 시 계집/ 허벅지가 햇살 튕기고 있는 광고탑 아래” 고급 승용차들이 “기
 림을 빨고 있는” 주유소가 들어선다. 화자는 이처럼 변화된 환경을 괴로
 워하다가, 거기서 외갓집 막내 이종형님을 만난다. 작업복을 입고 주유
 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종형님은 돌배나무를 닮은 “꺼칠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나’를 부른다.

39 이하 같은 시집 수록시를 인용할 때는 ‘『시제목』(『김미순전』)만 밝히기로 한다.

시의 화자는 소비 자본주의의 여성 표상과 거기서 버티고 있는 남성 노동자 형상을 대조하며, 노동자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이 시의 젠더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화자는 소비 자본주의의 성애화된 여성 표상을 가부장적 성경제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혐오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한편, 돌배나무를 ‘외숙모’ 곧 유사 어머니로 표현하며 민중적 생명력과 이타심을 여성의 자질로 재현하였다. 여성에 대한 이 같은 이중적 묘사는 화자가 소비 자본주의를 여성과 남성의 관계 변화, 즉 희생적 모자관계의 안온함에서 거래적 성애관계의 위기의식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는 그렇게 체감되는 남성성의 위기를 남성 노동자의 민중적 재정체화로써 극복하고자 한다. 시에서 남성 노동자인 이중형님이 외숙모의 민중성을 계승·회수하며, 그것은 노동자를 “도시 계집”과 대비시키는 성별화 구조로써 매개된다. 그렇게 여성과 적대함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된 남성 노동자는 아우를 부르며 남성연대를 만들고, 결국 시에서 민중성은 여성을 자원화·타자화함으로써 획득된다. 남성민중의 주체화 전략 중에서도 여성의 자원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이는 가속화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제 재편⁴⁰을 감감하는 ‘남성성 위기론’의 징후이다.

이처럼 『돌배나무』가 재현하는 남성 노동자의 재정체화는 “전망이 캄캄한 눈보라”⁴¹를 돌파하는 ‘눈사태’(『눈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남성연대 전략으로, 그것은 시집의 표제시 『김미순전』에서 반복되고 심화된다.

40 신자유주의 시대 가부장제 재구조화와 여성 주체성의 IMF 이전 맥락을 조명하며 급속한 이혼율 증가, 출산율 감소, 여성의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등을 논한 바는 다음을 참고. 엄혜진,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 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41 박영근, 『눈사태』, 앞의 책, 12쪽.

『돌배나무』에서 남성의 재정체화가 “코카콜라병처럼 빠진 도시 계집”을 매개로 했다면, 『김미순전』은 ‘여성 프락치’를 기획했는데, 이때의 여성 프락치 또한 소비 자본주의를 체현하면서 헌신적·이타적 여성상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돌배나무』의 여성 표상과 맥을 같이 한다.

『김미순전』은 시집 제3부에 배치된 장시로, 시집 전체를 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는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며, 시에 등장하는 김미순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노동자 재정체화로서 극복하기 위해 타락-처벌되는 여성 프락치이다. 그는 1990년 여름, 인천 부평공단 동양전자 공장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로, 철야를 거부하며 여자 연예인(최진실)을 선망하고 디스코를 추리 다니면서 “남자 후리는 재미”⁴²로 산다. 자본주의적 화려함과 향락문화를 추구하는 김미순의 행적은 “시끌시끌 온 바닥이 노조 이야기관”⁴³인 상황과 대비된다. 노동자의 철야 거부가 민주노조운동이 아닌 디스코로 이어진다는 설정은 여성 노동자들의 성산업 진입의 현실을 노동운동 위기의 배경으로 서사화한 것이다.

십 년을 씌어도 바로 그 자리 / 기름채찍에 감겨 한번 이곳하면 / 한푼 값어
치마저 날라가 버리는 공순이란 자리 / 그 자리에 거리의 화사한 불빛들 배고
프게 쌓여가고 / 어느 날 소문 한 님 달랑 땡굴 제 / 술집에 팔려가고 / 여관
골목으로 사라지고 / 그 자리에 사무치게 돌아가는 디스코나

-박영근, 『김미순전』(『김미순전』) 부분

인용한 시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폭발적 흐름 속에서도 “공순이란 자리”의 열악함은 여전하다. 같은 일을 십 년 지속해도 노동 환경과 생활

⁴² 박영근, 『김미순전』, 앞의 책, 62쪽.

⁴³ 위의 시, 69쪽.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가혹한 노동 규율에 한번 빠끗하면 “한푼 값어치 마저 날아가 버리는” 위태로운 자리임이 변함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유흥산업이 확대되어 여성 노동자들이 “술집에 팔려 가고 / 여관 골목으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횡행한다. 박정미에 의하면 한국의 기지촌 성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성매매 내수 시장으로 확대된다.⁴⁴ 당시 국내 경제 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해 한국 남성의 성매매 관광이 급증하고, 국내에서도 내국인 상대 성매매가 팽창했으며, 전두환 정권은 서울아시안게임(1986)과 서울올림픽(1988)을 앞두고 사치성 유흥업소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성산업에 거액을 지원하는 등 성매매 활황을 조성했다.⁴⁵ 이러한 가운데 성차별적이고 열악한 여성 노동의 고착화된 구조는 여성의 성산업 유입의 계기가 됐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만성적으로 여성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⁴⁶ 미순의 “사무치게 돌아가는 디스코”는 것처럼 변화하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혼란하고 처절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김미순전』은 사라진 여공들의 서사를 미순에게 주지 않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성매매 내수 시장의 확대를 정부의 유흥산업 정책이나 성구매자 남성, 성차별적 노동 환경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도덕적 책임으로 돌리고, 그래서 ‘노동운동 위기론’의 맥락을 여성의 문제로 전가한다. 이는 노동 환경과 노동운동에 대한 구조적 고찰 대신 여성의

44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2), 한국사회학회, 2015, 15~17쪽.

45 김태연, 『사회변화에 따른 성매매 양상의 변화』, 『여성과 인권』 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10~11쪽; 정재원, 『세계화 시대의 성매매관광』, 『여성과 인권』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0쪽.

46 조순경,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생산직 여성노동력 부족현상을 중심으로』, 『여성』 3, 한국여성연구소, 1989, 123~124쪽; 박정미,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 『여성학논집』 33(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6, 47~48쪽.

도덕적 타락 서사를 통해 운동의 정당성을 방어하려는 시도이다. 미순은 성실한 노동자도, 노동운동가도 되지 못하고 “제 성깔대로 갖은 가락으로 놀아 뿔”⁴⁷는 인물이다. 그는 여공 인생에서 한번쯤 피어 보고 싶어 남자를 만나지만, 자신이 ‘후린’ 남자가 ‘개털’임을 알게 되자 대차게 차버리는 ‘독한 년’으로 묘사된다. “그년 독하기가 / 개도 안 물어갈 삼년 묵은 월경뺨스로드”⁴⁸라는 시구가 보여주듯, ‘독한 년’이라는 낙인은 여성 신체에 대한 혐오로 표현되어 미순의 성적 욕망을 지탄하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도덕적 낙인은 공동체를 배신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불신으로 치환된다. 그렇게 이 시는 미순이 성과 돈에 탐닉하는 과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계급적 타락을 성적 타락으로 재현하면서, 공동체의 윤리를 파괴하는 ‘여성 프락치’ 형상을 구축한다.

이 시는 미순이 프락치가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사화한다. 프락치 운영팀 소속 경찰 ‘코란도(권도)’가 정체를 감추고 미순에게 접근한다. 그는 미순에게 “최진실이 뻘뻘”⁴⁹를 입게 하며 유혹을 하고, 미순은 쾌락, 비단옷, 지페다발에 현혹된다. 미순은 환각 속에서 “영동 한복판 최진실이 골목”⁵⁰에 있는 듯했다가 여급들이 있는 카페 골목과 가까워지는데, 그러한 환각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대공과 공단 프락치 운영실”⁵¹이다. 그렇게 미순은 프락치 공작을 당해 누구보다도 성실한 노동자이자 열정적인 노동해방 활동가가 되어, 노조에서 존경받는 사무장 ‘왈순’을 따르면서 감시한다. 미순과 왈순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두 여성은 외면·화려함(美)과 내면·품성(媿)으로 대비되고, 후자는 민주노조운동의 문화적 역량으로 재현된다. 미순과 달리 왈순은 인정과 의리가 있고

47 박영근, 『김미순전』, 앞의 책, 64쪽.

48 위의 시, 같은 쪽.

49 위의 시, 76쪽.

50 위의 시, 81쪽.

51 위의 시, 82쪽.

조직화에 능한 인물로, 코란도는 미순으로부터 왈순을 비롯한 노조의 행적을 보고받는다. 미순의 '일당백' 프락치 활동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위기에 처하며 왈순은 수감되지만, 미순은 평소 존경하는 언니로 따르던 왈순이 수감되자 죄책감을 느끼고 노동조합에 의지하게 된다. “두려움에 질려 울음을 터뜨릴 때 / 절로 입에 붙던 / 조합가”⁵²는 민주노조운동의 문화적 힘을 표현하며, 그것은 프락치 공작으로 장악할 수 없는 “눈 속”⁵³, “마음 속”⁵⁴에 있는 내면의 역량이다. 그러한 내면성의 문화적 역량은 ‘왈순’이자 ‘어머니’, 즉 미순이 동일시해야 하는 여성의 자질로 재현된다.

이처럼 『돌배나무』와 달리 『김미순전』은 노동운동을 수행하는 존재를 ‘여성’으로 재현하지만, 그는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운동을 위해 처벌받고 회심하는 존재이다. 『돌배나무』의 남성 노동자는 변화한 현실에도 노동현장을 지키는 존재로 재정체화된 반면, 『김미순전』에서 노동자의 재정체화는 여성의 자본주의적 신체에 대한 처벌을 매개로 한다. 그 처벌은 성폭력으로 재현된다.

낮도 없고 / 밤도 없고 / 문득 한꺼번에 시키면 사내들 달려와 / (중략) // 이 수치의 알몸을 무엇으로 덮으리 / 돈에 팔려 프락치로 팔려 / (중략) // 그 눈동자에 불꽃 한줄기 번쩍 뜨더니 / 권도란 놈을 본다 / 그 불꽃 하나 화락 화라라락 일어 피어나는데 / 천지가 문득 불 속인 듯 한꺼번에 불꽃이 터져오르는데 / 그 속에 활짝 한세상이 열리더니 / 웬 인생들이 쏟아져 쏟아져 나와 / 원한성으로만 소리소리해 쌓는데 / 권도란 놈 땀을 뽀뽀 뿜고 / 바들바들 떨던 사지는 되는 대로 비틀비틀거리고 / 아예 눈을 감고 주저앉아 동서남북으로 도리질치고 / 여기가 어디여 / 저거이 누구여 줄줄줄 헛소리를 하는 중에 / 아

52 위의 시, 129쪽.

53 위의 시, 136쪽.

54 위의 시, 138쪽, 142쪽.

이고, 내 목숨이여 뒤로 돌아 냅다 뛰어 / 출행량을 놓것다 / 그적에 권도란 놈
 한소리 하는데 / 어허 그년 모질다 / 제가 프락치로 행세할 적 / 갖은 이름 붙여
 팔아조진 연놈들을 / 어찌 품고 저리 산다는 말이나 / 아이고, 내 목숨이여 //
 어허 정녕 안되졌구나 / 저년이 살아 세상 구경 하다가는 내 아주 가게 생겼구
 나 / 저년이 분명 공단프락치 활동의 밑바닥 속살은 물론이요 / 잠행중인 프락
 치들 면상에 행선지까지 꿰고 있을 것이니 / 아주 죽기로 썩나팔을 불겼구나
 / 예라 한번 죽어봐라 // (중략) // 어이 찾아든 깜빡잠이었던가 / 꿈속에서 미
 순이 그 애 / 흰 눈 쌓인 별판을 보고 / 부리도 쫓지도 없는 새 한 마리 / 애써
 날다 날다 자꾸만 떨어져 / 눈발에 우는 모습을 보고 / 화들짝 깨어나 / 웬일로
 제 몸을 쓰다듬는다 / (중략) / 어이 찾아든 소망이었던가 / 문득 기계 소리 귓
 속에 쟁쟁 울리고 / 아아 푸른 작업복에 기계를 잡고 / 기계를 잡고 / 라인을
 흐르는 제 모습에 / 더운 눈물 쏟아진다 / 웬일로 하얗게 타던 형광등 불빛 꺼지
 고 / 캄캄 어둠 속을 울려오는 /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 (중략) // 내 이제
 끊으리 / 이 외줄 / 굴중의 운명을 끊어 / 자유로운 바람이 되리 / 아아 허공에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 / 하나둘 춤추는 벼들의 얼굴 / 나를 부르는
 알순이 언니 목소리 / 눈물도 고운 아아 우리 어머니

— 박영근, 『김미순전』(『김미순전』) 부분

인용한 시에서 미순에게 성폭력을 가한 이들은 “코란도의 사내들”⁵⁵로, 프락치 강요의 국가폭력을 표상한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것은 시에서 성폭력이 미순의 각성과 회심의 기제, 즉 노동운동의 규율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을 규율하는 처벌 방법으로 성폭력이 제시된 이유는 그것이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인용한 시는 미순의 성폭력에 대한 육체적 묘사에 주력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수치”로 반복 언급하고, 수치심은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내적 정동으로 재현된다. 노동자의 재정체화를 위해 내면성을 만드는 육체적 폭력의 기

55 위의 시, 131쪽.

획은⁵⁶ 저항 불능의 상태로 여성 노동자에게 내면화되어, 그로 하여금 동지를 배신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한다.

미순의 각성과 고백으로 노동운동의 물리적 폭력이 아닌 문화적 역량이 발휘돼, “웬 인생들이 쏟아져 쏟아져 나와 / 원한성으로만 소리소리해 쌓”자 코란도가 공포에 떨게 되고 그는 두려움에 미순을 죽인다. 그러나 미순의 반격(counterattack)과 죽음은 꿈이었고, 그는 자신의 노동자 시절을 그리워하며 프락치의 “굴중의 운명을 꿰”고자 자살하면서 어머니 같은 월순이 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에서 꿈 장면은 당시 형식의 풍자적 민중시 문법이 강화되는 대목으로, 이는 미순이 당한 성폭력, 프락치 공작에 희생된 조합원들과 민중들의 한, 그리고 코란도의 자멸을 희극적·격정적으로 미학화하면서 미순의 자살의 정동을 만든다.⁵⁷ 그렇게 기획된 노동운동의 내면적·문화적 역량은 국가폭력과의 대결이라는 환상(꿈)으로 노동자를 재정체화하는 성별화된 규율 장치로서의 ‘프락치 만들기’였다.

여기서 미순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순은 사내들의 처벌 이후, 자신의 프락치 활동으로 인해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을 폭발시킨다. 이를 통해 미순은 “그 비싼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56 배하은은 1990년대 초 한국문학의 ‘내면성’ 헤게모니 구축 과정과 ‘반성’의 테제를 고찰하고 그것의 외부(현실)/내부(영혼·정신)의 이분법적 체계를 비판한 바 있다. 배하은에 의하면 그러한 경향은 주체가 외부로 향하는 길이 닫힌 상황에서 등장했으며, “다른 종류의 내면”을 간과하거나, 내면성 체계로부터 이탈한 문학을 배제하였다.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547-573쪽) 이 같은 내면성 기획은 『김미순전』의 경우, 외부 현실과의 대결을 여성 신체에 대한 혐오와 처벌로 치환하는 한편, 여성의 내면을 자원화함으로써 수행됐다.

57 한편 『김미순전』에서 미순이 당하는 성폭력은 같은 시집 제2부에 수록된 『뮤직홀』과도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뮤직홀』은 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윤금이 씨 사건에 빚대면서 미학화하여 묘사한 문제적인 시라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의 미학화라는 문제점을 『김미순전』과 공유한다.

/ 그 무서운 권력으로도 조질 수 없는 / 웬 기이하고 엉뚱한 물건”⁵⁸, “노동 조합이란 물건”⁵⁹을 체현하는 주체가 되어 코란도를 위협한다. 그러나 『김미순전』이 미순의 반격이 아닌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은 프락치가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의미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락치는 용서받지 못한 채 프락치 공작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 죽고, 그 죽음은 자기 처벌로 재현 되어 진성한 회심으로서 완수된다. 또한 미순이 왈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노동조합과 동일시한 후 자살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여성 젠더의 탈착을 완료하고 추상화(남성화)된 사물로 재정체화된다.

이 같은 『김미순전』의 ‘여성 프락치 만들기’는 대공장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재편되며 남성 노동자가 전면화되는 한편 가부장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가 일어난 시기에, 노동운동의 위기를 ‘남성성의 위기’로 치환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김미순전』의 ‘여성 전기(傳記)’ 양식은 노동운동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여성의 문제로 재현하고 여성을 프락치로 표상해 자기 처벌적 해법을 만듦으로써, 남성 노동자를 비가시화하며 노조를 남성연대의 조직으로 재정체화하는 ‘위기의 외주화(outsourcing)’ 전략이다. ‘외주화’란 기업이 내부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전략으로, 미순이 꿈에서 본 날지 못하는 새가 우는 “눈밭”은 『김미순전』의 외주화 구조가 전망 없는 현실을 돌파하려 “눈사태”⁶⁰를 일으키는 남성연대 전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2.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개인화’: 이기호,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2009년에 발표된 이기호의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⁶¹은 순박한 남

58 박영근, 『김미순전』, 앞의 책, 145쪽.

59 위의 시, 64쪽.

60 박영근, 「눈사태」, 앞의 책, 10~12쪽.

성 노동자가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프락치 위치에 놓인 맥락을 성찰하는 서사를 통해 1980년대 노동운동을 기억한다. 허민은 이 텍스트가 1980년대 운동권 서사가 “삼촌(혹은 고모/이모)’의 이야기가 된 시간의 경과를 배경으로” 하는 후일담 소설이며, 여기서 기록될 수 없는 ‘여백’의 의미가 주목되어 “역사의 주체에 대한 다른 전망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⁶² 이러한 여백은 타자성의 복원을 포기하는 윤리적 의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대한 믿음, 소외된 존재의 발견 등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⁶³ 그러나 이 소설의 여백의 의미는 그 역사성과 전망, 젠더적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독해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 소설이 ‘삼촌’의 사연을 추적하는 ‘나’를 통해 1980년대 프락치 서사를 2000년대 청년남성 서사와 교차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삼촌이 근무하던 공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전국을 떠돌다 사라지게 된 사정을 좇는다. ‘나’의 삼촌은 경기도 가평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하다가 훈련이 험한 맹호부대를 제대한 후 다시 농사를 짓던 농촌 청년남성이다. 할머니는 1982년에 그런 삼촌을 결혼시키기 위해 서울로 올려 보냈고, 삼촌이 서울 구로동 대동피혁 공장에서 일하게 됐지만 여전히 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1987년 가을, 그의 연애에 도움이 되라고 ‘프라이드’ 자동차를 사준다. 프라이드를 애지중지하던 삼촌은 차를 탄 지 두 달만에 다니던 공장을 돌연히 그만두고 전국을 떠돈다. 프라이드에 대한 삼촌의 애착은 가족들이 프라이드를 ‘숙모님’이라 부를 정도로 각별했지만, 가족들은 그러한 삼촌을 이상

61 이기호,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이기호 외,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2010』, 문학의숲, 2010.

62 허민, 『후일담의 역사와 ‘운동권’의 글쓰기』, 『구보학보』 37, 구보학회, 2024, 103~106쪽.

63 강동호·강지희·김나영·송종원, 『이야기의 인력, 떠오르는 여백—2010년 봄의 한국소설』, 『문학동네』 63, 2010년 여름호, 695~702쪽.

히 여길 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삼촌은 2004년 봄, 집에 프라이드를 주차해놓고 사라진다.

‘나’는 삼촌의 자취를 추적하다가, 삼촌이 ‘구로동일꾼노동자회’에 가입했고 거기서 만난 학출 여성 노동자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삼촌이 그의 연애(결혼)를 위해 가족이 구입해 준 프라이드 때문에 프락치로 오인되어 노동자회 회원 대다수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했으며,⁶⁴ 그 배경에는 프락치 공작을 한 고모부와 본인도 모르게 프락치가 된 고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노동자회 인원은 불순 좌경세력이자 폭력 집단으로 기소됐고, 고모부는 그중 삼촌을 빼내기 위해 그를 프락치라고 속였으며, 고모부가 고모 명의로 입금한 돈 30만 원이 삼촌의 프라이드 구입에 보태진 것이 근거가 되었다. 삼촌이 사랑한 학출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회의 주동급으로 밝혀져 수감되었고, 삼촌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프락치 공작에 연루된 것을 속죄하며 프라이드의 후진 기능을 제거해 차체를 직접 미는 노동을 해왔다. 그러한 속죄로서의 노동은 여성과 삼촌을 잇는 행위였는데, 십수년간 그녀가 있는 곳으로 주행했던 삼촌의 프라이드는 후진 기능을 차단했기에 엔진에 무리가 덜 가 계속 운행될 수 있었다. ‘나’ 또한 삼촌의 프라이드를 운전하며 프라이드에 결합이 없었다면 자신이 삼촌의 차를 거리낌 없이 몰지 못했

64 1980년대의 프락치 폭로 담론에서 값비싼 자동차의 소유는 프락치를 식별하는 서사로 등장하곤 했다. 일례로 부산노동자연합의 민중시인 하일 프락치 폭로에서는 하일이 “로얄살롱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부산노동자연합, 『[충격폭로] 재야인사, 민중시인으로 행세한 하일의 민주노조파괴 프락치공작』, 『노동해방문학』 5, 노동문학사, 1989.09, 70쪽). 한편, 학생운동 외에 노동운동에서 프락치로 의심받은 노동자가 폭행당한 실제 사건은 1990년에 마산의 ‘일꾼노동상담교육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안기부는 피해자가 정보원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프락치로 확인(폭로/양심선언)되지 않았고, 『밀수룩 다시 가까워지는』에 재현된 노동운동 단체의 명칭이 ‘구로동일꾼노동자회’로 ‘일꾼노동상담교육원’과 유사해 해당 사건을 연상시킨다. 『정보기관 프락치 용의자 폭행 혐의 노동상담소 직원등 5명 연행』, 『한겨레신문』, 1990.03.08.; 『공권력 노조와 해 총력』, 『한겨레신문』, 1990.03.31.

을 거라고 말했고, ‘듀오’에 가입할 수 없는 남성 청년 대학원생인 ‘나’의 운전은 여성과의 연애의 계기가 됐다. 소설의 말미에서는 할머니(여성)을 태우고 리어카를 뒤에서 민 삼촌의 노동이 리어카를 앞에서 끄는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한 후, 그가 차를 직접 밀어 후진한 거리는 측정되지 않는다면 측정불가능한 그 거리를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질문한다.

—야, 야, 이러니까 꼭 옛날 생각 난다. 옛날에 네 삼촌도 나랑 논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꼭 리어카를 이렇게 밀었거든. 끌지 않고, 꼭 뒤에서 밀었어. 이 할미 얼굴 계속 바라보면서 말이야……

나는 허리를 더 아래로 깊숙이 숙인 채, 프라이드를 밀었다. 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다. 삼촌은 이렇게 직접 민 것 또한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 거리는 과연 어떻게 잴 수 있는 것일까.⁶⁵

인용한 글은 삼촌과 ‘나’의 결혼 모티프를 통해 재현불가능한·실패한 남성성의 윤리를 조명하려는 소설의 주제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모델”⁶⁶인 프라이드로써 남성의 속죄와 가부장 되기 실패를 조명하며 비हे게모니적 남성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인용한 대목은 삼촌이 할머니가 탄 리어카를 앞에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었다는 언급으로 비지배적·희생적 남성성을 재현하고 ‘나’에게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는 결혼 못/안 하는 ‘남성성의 위기’ 서사를 공유하는 ‘실패하는 남성성’의 계보화이다.

그렇다면 삼촌과 ‘나’가 공유하는 ‘남성성의 위기’ 서사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갖는가? 먼저 삼촌의 상황은 1980년대~1990년까지 부상한 농촌층각 결혼문제를 상기시킨다. 1988년 8월 7일자 『한겨레신문』은

65 이기호, 앞의 글, 54쪽.

66 위의 책, 18쪽.

“농촌에 살면서 결혼하기가 힘들게 되자 도시지역의 공장 등에 ‘위장취업’하여 결혼한 다음 농촌에 복귀하”거나, “결혼을 못해 비관, 자살하는 농촌 청년의 수가 82년 이후 30여 명 이상이나” 된다고 보도하며, 농촌 청년의 결혼난을 이농 증가, 농업정책의 한계, 농촌의 문화적·경제적 빈곤, 여성의 도시지향적 결혼관 등으로 설명했다.⁶⁷ 1990년 이후 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은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유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국제결혼’으로 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1991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유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주여성들의 유입은 결혼이주와 노동이주가 결합된 ‘고용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⁶⁸ 『밀수룩다시 가까워지는』에서 삼촌이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 공장에 취업한 시기는 바로 이러한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부상한 때와 맞물린다.

이 소설은 1980년대 농촌문제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남성 이슈와 연결하며 ‘남성성의 위기’를 역사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가 남성 대학원생으로 설정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원생이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주목되고,⁶⁹

67 이듬해에는 ‘전국 농촌총각 결혼대책위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단체는 농촌총각들의 결혼 방안을 모색하고, 결혼문제를 야기한 왜곡된 농업정책에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여성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여성노동자회를 방문해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 참된 꿈과 사랑을 일구자”는 호소문이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배포하기도 하고, 『여성신문』 창간 1주년 기념식에 찾아가 “여성신문과 여성계에서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농촌청년 장가들기 갈수록 심각』, 『한겨레신문』, 1988.09.07.; 김기갑, 『농촌문제 해결에 여성이 함께 해야』, 『여성신문』 54, 1989.12.22.; 『農村(농촌)총각들 모여 결혼대책위(위) 결성』, 『조선일보』, 1989.12.15.; 『여성신문 일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쳐』, 『여성신문』 53, 1989. 12.15.

68 『신랑감 韓國人(한국인)이 좋아요』, 『경향신문』, 1989.06.10.; 『中国(중국)교포 처녀 35명 신랑감찾아 내달 訪韓(방한)』, 『조선일보』, 1991.04.20.

69 『실업률 하락…취업포기 청년 1년새 10만명 ↑』, 『경향신문』, 2007.05.09.; 김영경

‘88만원 세대’ 담론이 결혼 못/안 하는 청년남성 서사와 연결되는 한편,⁷⁰ ‘취직’, ‘혼테크’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며 결혼정보회사 시장이 성장한 맥락을 담고 있다.⁷¹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식인과 노동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은 하위계급 남성의 계보화가 시도된 것이다. 이 같은 계보화는 비혜게모니적 남성성을 노동자 계급에게 이어받아 금융위기 이후 남성성 위기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때 ‘프락치 서사’는 국가 폭력과 노동운동 모두와 거리를 두는 ‘개인화된 남성성’을 구축하는 전략이 된다.

소설은 고모부의 가정폭력과 국가폭력(프락치 공작)을 유비관계로 배치하고, 삼촌이 노동자화 회원들에게 당한 집단 린치(프락치 만들기)를 재현함으로써 국가와 노동운동의 폭력적 남성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삼촌을 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루된 프락치 공작의 책임을 떠안는 존재로 묘사해, 스스로를 피해자화하지 않는 남성의 형상을 만든다. 즉 삼촌은 폭력의 구조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홀로 짊어지는 존재로, 개인성의 윤리를 체현한다. 그의 개인화 전략은 실제로

외, 『한홍구—서해성의 직설 “청년백수를 군인 숫자보다 줄여라”』, 『한겨레신문』, 2010.10.21.

70 신동욱 외, 『결혼도 ‘스펙’』, 고미숙 외, 『국가 경쟁력이 성욕까지 물수했다』, 『한겨레 21』 772, 2009.08.07.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가 10~20대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섹슈얼리티 문제로 설명하며 그 주체를 남성으로 상정했음을 지적하고, 88만원 세대·삼포 세대 담론의 남성 젠더적 성격과 ‘조정상성’ 섹슈얼리티 서사를 비판한 바로는 이혜령,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목가적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돌아보며』, 『여성문화연구』 3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2~14쪽.

71 “어려울 때일수록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면 큰돈을 벌니다.” 『“좋은 짝은 굴러들 어운 福” 듀오정보(?) 김혜정 대표』, 『매일신문』, 2009.05.02.; 문혜정, 『[기업속으 로듀오···‘뚜쟁이’ 아닌 ‘인생 컨설팅’ 업체로』, 『한국경제신문』, 2007.12.12.; 신정원, 『“혼테크, 취직은 옛말! 골드미시, 속지주의를 아십니까”』, 『뉴스시스』, 2007.11.05.; 조국현, 『취업 어려운데 차라리 한살이라도 젊고 예쁠때... 20대 초반 여성 ‘혼테크’ 는다』, 『국민일보』, 2009.08.30.; 최민이, 『20대 초반 ‘취직 열풍’』, 『일요시사』, 2009.09.08.

프락치 활동을 한 당사자가 고모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색출정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프락치 공작의 피해를 책임지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체제의 실패와 구조의 결함을 개인의 실패와 결함으로 위장하고 치환시키는”⁷² 신자유주의의 초개인주의적 해법으로서 가부장제와 결합한다. 삼촌은 자신이 고모부의 프락치 공작에 연루됐음을 아는 반성의 주체이자 무고한 성찰자이지만, 고모는 “지금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건지 모르고 있는”⁷³ 무지한 피해자로 머문다. 고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고모부가 외도 상대 여성에게도 폭력을 가한 것을 보고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인물로, 자신과 타인의 피해가 연루돼 있음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폭력을 끊어내는 존재임에도, 자신의 프락치 공작을 인식하지도, 삼촌의 속죄 행위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채로 남겨져 있다. 고모가 이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촌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행위를 책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화된 남성성은 상황 인식의 권한을 독점하여 여성이 자기 삶을 해석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한계를 갖는다.

이 같은 남성성 전략의 한계는 여성 학출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여성 학출과 가까워짐으로써, 그녀와의 동일시를 통해 주체화를 꾀한 삼촌의 자아 기획은 비현열적 가족구성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소녀의 존재’,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실패한 것으로 암시된다. 소설은 ‘프라이드’가 상징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랑과 속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지는 삼촌의 실패를, 지배적 남성성을 ‘밀어내고’ 여성의 남성성과 ‘가까워지는’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윤리로 의미

72 이영자,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개인주의: 개인주의의 후기 근대적 변종』, 『현상과 인식』 35(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1, 112쪽.

73 이기호, 앞의 글, 47쪽.

화하며 그에 대한 기억을 촉구한다. 그런데 실패의 윤리는 실패의 맥락과 더불어 고찰되어야 한다. 삼촌은 “남자들 틈에서도 기죽지 않고 팔팔한 목소리로 말을 하”⁷⁴는 여성 학출을 선망하며, 고모부로 대표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단절하고 여성과 동일시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의 남성성’⁷⁵과의 동일시라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남성성을 혁신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여성 학출에 대한 그러한 묘사는 여학생 신분을 극복하며 형성되는 학출 여성 노동자의 정동을 재현한 것으로서, 여성이 탈여성화되어야 했던 운동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⁷⁶ 여성 학출의 젠더를 가부장적 남성성의 답습으로 매도하거나 젠더 교란의 모범으로 이상화하지 않고, 그 구조적 조건과 효과를 입체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학출 여성 노동자의 젠더는 남성성 혁신을 위한 대상으로만 다루어졌다.

소설에서 이러한 남성성 전략은 금융위기 이후 청년남성의 비헤게모니적 에토스로 제시된다. 과거 남성 노동자가 여성 학출과 동일시했던 전례를 따라 이제 남성 대학원생이 남성 노동자와 동일시할 것이 제안된다. 이 같은 시도는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남성의 젠더를 어떻게 성찰하게 하는가? 사실상 소설에서 청년여성은 할머니나 여성 학출과 마찬가지로 ‘나’의 프라이드에 타는 유사 피부양자로 등장한다. 개인화된 남성성의 보호·희생·실패는 가부장적 구조와 충돌하기보다, 여성 억압

74 위의 책, 35쪽.

75 주디스 헬버스탐은 톰보이, 안드로진, 부치, 스톤 부치, FTM 트랜스섹슈얼 등 ‘남성적 여성들’이 가부장적 남성성을 극복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져온 것을 비판하고, 역사와 대중문화 속 ‘여성의 남성성’을 분석하면서 남성성이 남자들에게만 특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고찰한 바 있다. 주디스 헬버스탐, 유강은 옮김,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76 학출 여성 노동자의 여학생 탈정체화와 노동자 정체화, 운동권 여성의 탈여성화된 젠더 수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다수의 증언이 있다. 『허성우 구술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1070>, (검색일: 2025.12.28.) 등.

이 남성의 희생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는 인식을 만든다. 이 소설은 듀오에 가입할 수 없는 ‘나’에게 ‘남성의 피해자화’, ‘헤게모니적 남성연대’와 거리를 둘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동시대 청년여성에 대한 낙인인 ‘된장녀’·‘루저녀’ 담론과 군가산점제 관련 역차별 주장으로 부상한 여성 혐오,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에는 무관심한 채, 개인주의적이고 온정주의적인 가부장성 수행을 권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 프락치는 남성성의 위기를 스스로 짊어지는 남성의 탄생을 위해 피보호자로 동원되었다. 가부장 되기에 실패하는 하위계급 남성의 개인화된 보호·희생은 가부장적 구조에 균열을 내는 윤리적 행위가 되지 못하고 성차별을 후경화하면서 가부장제를 지탱한다. 삼촌의 실패는 그러한 남성성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보여주지만, ‘실패의 프라이드’의 전수는 가부장 되기에 실패한 남성들로 하여금 개인화된 가부장성 수행을 지속하게 한다.

최태섭에 의하면, “외환 위기가 남성의 위기로 전치되면서 만들어졌던 ‘불쌍한 남자’의 수사들”⁷⁷은 지금까지도 이성애 섹스·연애·결혼 못하는 청년남성의 상실감의 서사로 지속되고 있다.⁷⁸ 이에 대해 정희진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이성애보다 남성 연대가 더 중요하다”며, “이성애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대등해지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농촌 총각’이 사회 현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⁷⁹고 하였다.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이 모색한 남성성의 진정한 혁신은 소설에서 간과된 지점, 즉 여성을 잉여화·자원화하지 않으면서 개인화된 퇴장의 미덕을 넘어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를 성찰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성 위기론’과의 과감한 결별이 필요하다.

77 최태섭, 『한국, 남자-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 은행나무, 2018, 189쪽.

78 최태섭, 『한국, 남자는 억울한가? 청년 남성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인식, 그리고 젠더 정치』, 『안과밖』 59, 영미문학연구회, 2025.

79 정희진,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 교양인, 2023, 193쪽.

3. 운동권 여성 프락치 ‘위치’의 역사화

3-1. ‘운동 안의 노동’과 집합적 작명: 최윤, 『회색 눈사람』

앞서 살펴본 ‘여성 프락치’의 문학적 재현이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 위기와 금융위기를 ‘남성성의 위기’로 해석하고 그에 개입하는 전략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운동권 여성 프락치의 ‘위치’를 여성의 기억으로 역사화한 문학의 사례를 주목한다. 이를 통해 여성 프락치 만들기에 대한 대응이 신자유주의 통치성 비판의 맥락에서 이뤄진 바를 조명하고자 한다. 1992년에 발표된 최윤의 『회색 눈사람』⁸⁰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은 1980년대 운동권 사회를 재현한 것으로,⁸¹ 최윤이 서강대 교수 재임 시절 여학생들이 운동조직에서 겪었던 고충과 그들이 민주화 이후 망각된 현실을 접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설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² 이 같은 『회색 눈사람』의 문제의식은 ‘프락치 만들기’를 변혁운동의 젠더 구조와 더불어 성찰하게 한다. 『회색 눈사람』에 대한 논의는 민주화 이후 사라진 · 망각된 여성에 대한 애도 · 신원 · 기억,⁸³ 여성의 연대와 돌봄,⁸⁴ 소수적 · 자전적 글쓰기와 집합적 주체성

80 최윤, 『회색 눈사람』, 『회색 눈사람』, 문학동네, 2017.

81 임희현,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4, 85~86쪽.

82 Ch'oe yun · Jeong Wookyung, “Dynamiques féminines dans la littérature coréenne des années 1980~1990”, *Keulmadang n°7*, 2023, 10. 정우경, 『여성 작가의 ‘역사 쓰기’와 ‘돌봄’의 전망 - 최윤의 19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21쪽; 임희현, 앞의 글, 85~86쪽에서 재인용.

83 소영현, 『애도하는 여자들 - 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74,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561~565쪽; 유승희, 『최윤 소설의 역사기억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1; 조연정, 『후일담과 여성 -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과 최윤의 소설』, 『대중서사연구』 63, 대중서사학회, 2023; 임희현, 앞의 글; 김혜선, 『후일담 문학과 상속의 정치: 1990년대 한국문학의 재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5.

84 정우경, 앞의 글.

및 타자성⁸⁵의 차원에서 두텁게 진행돼 왔다. 본고는 「회색 눈사람」에 재현된 운동사회의 성별화된 구조를 ‘프락치 만들기’의 맥락에서 재론하고, 경계적 위치를 재전유하는 여성의 행위성을 고찰한다.

1992년에 발표된 「회색 눈사람」은 약 20년 전 변혁운동에서 경계인으로 존재했던 ‘강하원’이 일간지의 짧은 부고 기사를 읽게 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강하원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도착한 서울에서 고립감에 시달리는 여대생이었다. 강하원의 어머니는 그를 이모에게 맡기고 미군 운전병과 함께 미국으로 갔고, 강하원은 대학 입학을 위해 이모부의 병원비를 훔쳐 고향에서 달아났다. 강하원은 버림받은 아픔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다고 여기며, 대학이 자신에게 과분한 곳이라 생각해 휴학을 하고 고립된다. 헌책을 사고팔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강하원은 자신이 구매한 책을 되파는 과정에서 ‘안’을 만나게 되고, 안은 강하원의 사정이 딱해 보인다면 그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쇄소의 잡일을 맡긴다. 그러던 중 안은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을 강하원이 엿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강하원에게 자신의 활동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다. 강하원은 학교를 그만두고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이 가담한 일이 ‘문화혁명회’의 지하조직 운동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으로 암시된다.

강하원을 조직에 가담시킨 안의 행위는 위험 요소를 내부로 포섭·관리하면서 외부화하는 것으로, 강하원은 이러한 사내하청식 외주화 구조를 ‘의구심’으로 감각한다. 강하원은 안이 왜 자신을 더 문책하지 않

85 유승희, 앞의 글; 장준영, 「최윤 소설의 타자 인식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22; 이한나, 「‘젠더번역’ 관점에서의 최윤 소설—최윤, 「회색 눈사람」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고은새, 「최윤 소설 연구: 여성성 너머의 글쓰기」,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5; 유예현, 「(불)가능한 전기적·자기서사로서의 최윤 소설—전언의 형식과 2인칭 서술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69, 반교어문학회, 2025.

고 자기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과 안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믿지 못한다. 소속감을 만드는 동질감에 대한 의구심에도 강하원이 지하활동을 하는 이유는, 안이 서울에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강하원은 안과 함께하고자 하며 그를 그리워한다. 안에 대한 그리움은 죽을 만큼 고독한 강하원에게 절박한 것이었다. 강하원은 안이 그러한 절박한 그리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면서, 그가 제안한 일의 의미를 묻지 않고 수락한다. 이처럼 강하원과 안의 관계는 그들을 매개한 책(제목)이 명료한 의미를 갖지 못했듯 “곡해와 불안과 의혹”⁸⁶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강하원은 고립을 넘어 “그때부터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었”⁸⁷다고 회고한다.

나는 그리워하고 있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아무 일이 나 그리운 것이 아니라, 비록 외곽에서의 잡일이기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내가 하기 시작한 바로 그 일을. 바로 그 인쇄소에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그들과 일하는 것을.⁸⁸

인용한 글에 설명된 강하원의 그리움은 지하활동에 대한 열정과 얽힌 ‘공동체’에의 욕망이다. ‘공동체’는 “1970년대 문화운동의 지향을 가리키던 용어”이자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개념으로, 특히 1970년대 연행예술운동을 이끈 문화운동 1세대와 ‘도서출판 공동체’에 의해 구체화됐다.⁸⁹ 그러한 ‘공동체’ 용어는 1980년대 중반까지 민중의

86 최윤, 앞의 글, 23쪽.

87 위의 글, 같은 쪽.

88 위의 글, 37쪽.

89 정원옥, 『1980년대 문화운동에서의 공동체담론과 오월 광주』, 『문화/과학』 90, 문화과학사, 2017, 195쪽.

‘조직화’ 과정의 집단성·자발성의 고양과 관련됐으나, 1985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함께 조직화 자체를 넘어 조직적 위상·방향·관계 등이 고려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됐고,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축소되었다.⁹⁰ 그렇게 운동적 과제는 조직적 결속력을 만드는 공동체의식에서 과학화의 차원으로 나아갔고,⁹¹ 공동체 담론은 동구권 붕괴 이후 문화운동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거의 사라진다.⁹² 그런데 인용한 글은 공동체성을 ‘유대감’과 구별하고 있다. ‘사람’이나 ‘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인쇄소에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그들과 일하는 것을” 그리워했다는 표현은, 공동체에 대한 욕망이 유대 관계나 업무 자체의 추구와는 차별화됨을 말한다. 이처럼 『회색 눈사람』은 1992년 무렵, 누구보다 공동체를 욕망했던 조직의 경계인 여성 강하원을 통해, 축소되거나 잊힌 조직적 결속의 이념(idea)으로서 공동체를 소환하며 그것을 재정의하였다.

문화혁명회에서 강하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강하원은 회원들이 집필한 글을 교정하고, 간헐적으로 그 인쇄물을 배부하는 일을 맡았다. 글은 시위 현장이나 지방에 배포될 것들이었다. 강하원은 자신이 담당한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많은 이름들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묻지도 않았다.”⁹³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태여 묻지 않는 강하원의 태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감내함으로써 조직에 적응하는 방식이었다.

90 이영미, 「1970년대, 1980년대 진보적 예술운동의 다양한 명칭과 그 의미」, 『기억과 전망』 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440~443쪽.

91 김창남, 「80년대의 문화와 문화운동」, 『문학과 사회』 2(4), 문학과지성사, 1989.

92 정원옥, 앞의 글, 197쪽.

93 최윤, 『회색 눈사람』, 앞의 책, 24쪽.

나와 그들 사이에는 늘 일정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일부러 내게 일의 전반적인 절차를 숨기거나 따돌리지도 않았다. 어떤 때는 그들이 내게 취하는 거리가 마음 편하게 느껴졌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것이 며칠간의 불만을 만들기도 했다. 내 편에서 그 거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힘에 겨웠다.⁹⁴

그들의 토론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나는 한구석에서 고정지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되도록 몸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대화에 신경을 집중해 듣곤 했다. 그들이 것처럼 열변을 토할 때면 나는 자주 불필요하게 너무 무겁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는 처치 곤란한 가구라도 된 느낌으로 모든 움직임을 삼갔다. 나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모았다. 주로 그들 모임의 취약점이나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글에 대한 일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간간이 잡담을 통해, (중략) 주변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다였다. (중략) 내가 있어서였는지 각자의 사생활에 관한 그들의 대화는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사는 일이 그다지 지옥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옅은 희망이 생겨나기도 했다. 내가 원하지만 하면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들과 한식구가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 걸음을 걸어도 그것이 푹푹 발이 빠지는 모래밭을 걷는 기분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낙천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인쇄물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쓰이고 그들이 바라는 효과가 무엇인지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나는 그들에게서 멀리 있었다. 그들은 내게서 멀리 있었다.

가끔 안은 귀갓길에 “강양이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떠나도 좋다 (중략)”고 말했다. 나는 떠나기는 커녕 누구보다도 일찍 인쇄소에 도착했고

94 위의 글, 같은 쪽.

가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았다. 김은 그런 나를 강진드기라고 별명을 붙여 놀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들 셋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의 회합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하지 않았다. 그 불균형의 균형 속에서 날들이 지나갔다.⁹⁵

인용한 글은 문화혁명회 회원들과 “한식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그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몸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하는 현실의 간극을 묘사함으로써, 강하원이 겪는 구조적 소외를 표현한다. 강하원에게 일의 절차를 일부러 숨기거나 그를 따돌리지는 않지만 회합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 않고, 가라고 말하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는 강하원에게 “강진드기”라고 놀리며,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말하는 이 ‘거리감’⁹⁶의 정체는 무엇인가? 안이 문화혁명회와 관계없어 보이는 강하원을 적극 영입한 이유는 그의 이질성이 조직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신 있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무장해 있지도 않았”기에 회원들의 글을 “고용인의 성실성으로”⁹⁷ 교정할 수 있는 사람. 인쇄물을 운반해도 크게 위협할 것이 없는 인물. 조직의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갖지만 주변적인 사실만을 알 뿐인 사람. 자기 업무의 쓰임과 효과를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회원들로부터 멀리 있음을 더 잘 아는 사람. 공들여 신뢰를 쌓거나 단속하지 않아도 안팎으로 안전하여 충실하고 유용한 존재. 그의 자리인 ‘운

95 위의 글, 26~28쪽.

96 고은새는 문화혁명회 회원들이 서로를 이름이 아닌 성씨로 부른 점에 주목하여, 강하원이 조직 내에서 유대감이 아닌 거리감을 느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그가 ‘김희진’의 이름을 명명한 것과 대조한 바 있다. 그런데 소설에서 안이 강하원을 ‘강양’이라 부르는 것이 강조됨에도, 문화혁명회 회원들이 서로를 성씨로만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하원은 모임이나 글을 통해 가명이든 본명이든 여러 이름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직 침탈 이후 신문기사에서 동료들의 이름을 확인하려 했다. 소설에서 문화혁명회 회원들이 성씨와 이름으로 구분되어 재현된 것은 강하원이 당시 지하운동의 기억을 사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취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고은새, 앞의 글, 93쪽.

97 최윤, 앞의 글, 23쪽.

동안의 노동⁹⁸은 안전하기에 위협하고 중요하여 역설적으로 의심받는 위치였다.

소설에서 ‘운동 안의 노동’의 자리는 ‘메신저’ 역할로 구체화·성별화돼 있다. 강하원이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⁹⁹라고 묘사한 문화혁명회는 그러한 목소리를 교정하여 전달하는 성별화된 노동을 필요로 했다. 그 위치는 수상하기에, 문화혁명회의 ‘정’은 강하원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며 그를 조직 활동에 참여시킨 안을 공격하지만, 그러한 의심은 추궁도 변호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중략) 씩 웃을 뿐”¹⁰⁰인 것이다. 프락치 같은 수상한 존재가 조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하원이 나타나지 않은 날에 동료들은 불신을 동반한 불안의 기색을 보인다. 이 같은 강하원의 존재는 언제든 프락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조직 내부의 노동의 자리에서, 여성 운동가의 위상이 ‘프락치만 듣기 구조’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강하원이 조직 내의 외부적 존재인 프락치와 유사하다는 점이 잘 드러나는 것은 그가 조직의 위기 대응에 동원될 때이다. 강하원은 조직이 침탈되고 동료들이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세계가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¹⁰¹고 느끼며 자신이 누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98 양가영은 『회색 눈사람』에서 강하원의 노동에 대한 정동을 주목하며 그의 무산계급 노동자의 위치를 논한 바 있다. 그러나 강하원의 노동이 ‘운동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특성을 간과하고, 동료 안이 “인쇄소의 사장으로 부르주아에 속한다고” 단순화함으로써, 강하원의 노동의 성격과 이를 둘러싼 조직 내 구체적 관계가 삭제되었다(양가영, 『1990년대 주류 소설에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의 의미-최윤의 『회색 눈사람』과 백민석의 『내가 사랑한 캔디』를 통한 비운동권 소설과 노동 문학의 관계에 대한 재고』,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학회, 2023). 한편, 1980년대에 『노동해방문학』을 출판한 ‘노동문학사’에서 보급투쟁과 실무노동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을 조명하며 운동조직 내 노동 문제를 고찰한 바로는 다음을 참고. 허요한, 『박노해 민중시의 전개와 전위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4, 257~272쪽.

99 최윤, 앞의 글, 17쪽.

100 위의 글, 31쪽.

기도한다. 그리고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더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¹⁰²린다. 이후 강하원은 안의 요청을 받고, 조직의 핵심 인물 김희진이 도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여권을 내어준다. 안은 강하원이 조직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의 여권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강하원 또한 그렇게 쓰일 자기 위치를 짐작했다. 강하원은 “그앤는 내게 이런 일을 부탁할 권리가 있는가?”¹⁰³ 자문한 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자답하는데, 이는 조직에서 소모될 자신의 역할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강하원은 만약 안이 자기에게 사무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식의 편지를 썼다면, 그러니까 동지애를 운운하는 류의 정서적 호소를 했다면 크게 상처받았을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처럼 경계인인,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안전한 강하원이 조직의 위기 대응에 중대한 역할을 맡는 것은 프락치 만들기 구조와 맥을 같이한다.

김희진 또한 조직 내에서 강하원과 유사한 위상을 갖는데, 그는 조직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외부화(출국)되는 존재이다. 강하원은 아픈 김희진을 ‘대신해’ 소식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다녔는데, 이는 김희진이 조직의 ‘연락책’ 역할을 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강하원 또한 ‘운반책’ 역할을 하기도 했다. 메신저인 강하원과 김희진은 손을 맞잡고, 조직 침탈로 발표 계획이 무산된 글들을 재집필·보관하며 동료에게 전달해 조직의 계획을 실현하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김희진은 자신의 글들을 강하원에게 전하고, 강하원은 동료들이 준비하던 글들을 자신이 교정보던 기억에 의지해 재집필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관하여 안에게 전한

101 위의 글, 39쪽.

102 위의 글, 41쪽.

103 위의 글, 46쪽.

다. 안은 후에 민중예술가이자 운동가로 유명해져 여러 지면에 발표를 하고, 강하원이 안에게 전달한 글의 일부 또한 잡지에 실리게 되지만, 그것은 강하원의 문화혁명회 활동이 실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즉 강하원이 전한 글은 안의 목소리로 발표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메신저들은 잊힌다. 김희진은 미국으로 도피한 후 철저하게 방치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다가 아사했으며, 강하원 또한 더 이상 동료들과 연결되지 못한다. 안의 활동은 강하원과 김희진을 기억하는 행위와 무관하다. 이처럼 이 소설은 조직의 결정적인 외부(경계)가 동원되고 망각되는 ‘여성화된 자리’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거기서 수행된 ‘여성들의 연결과 기억’을 강조하며 경계적 위치의 의의를 밝힌다.

주목할 것은 이 소설이 20년 전 일을 ‘회상’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현재, 즉 1990년대 강하원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무슨 일 때문인지 학교를 그만두고 필생의 저술을 집필하기 위해 내가 사는 시골로 낙향했다는 한 교수를 만났다. 그는 언어학자였는데 『우리 시대의 언어사회학 강의』라는 제목의 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대신해 자료도 찾고 원고도 정리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가에 내가 자청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나는 그의 조수로 일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대신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의 도서관으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저서가 언젠가 빛을 볼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노교수의 방대한 사고는 매주 계획이 확대되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¹⁰⁴

인용한 글이 보여주듯 강하원은 여전히 20년 전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문화혁명회가 그러했듯, 노교수가 조수에게 기대하는 일은 기록/기억되지 않는 노동이지만, 노교수의 “필생의 저술”은 그 자신의 힘으로

104 위의 글, 54쪽.

빛을 보기 어렵고 결국 강하원이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복이 강하원이 과거의 일을 “자칭해서” 재현한 것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강하원은 문화혁명회 활동에 처음 동참했을 때도 안이 제 안한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는 이해하지 못할 자신만의 동기로 일을 시작했다. 문화혁명회의 글들처럼 강하원이 애착을 갖는 노교수의 저술 또한 그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글이다. 강하원은 자신의 글쓰기/노동을 낭만화하지도, 폄하하지도 않으며 ‘회색의 희망’을 지켜낸다.

나는 늘 그 시기에 대한 짧은 보고서 형식의 글을 쓰고 싶어했다. (중략)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삶은 얘기될 만한 흔적이 없다.¹⁰⁵

“얘기될 만한 흔적이 없”는 소수자의 글쓰기는 타인의 말을 번역·교정·편집·전달하는 행위와 유사하다.¹⁰⁶ 그러한 글쓰기가 안이나 노교수와 같은 명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하원의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¹⁰⁷았고,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도 고립과 싸우기 위해 혼자 작업한 번역 원고였다. 그러나 강하원은 스스로를 이름을 되찾으려는 자이기를 넘어, 경계의 자리를 지키며 집합적 작명을 수행하는 존재로 정체화한다. 이는 경계에서 맞본 희미하고 수상한 “희망의 색깔을 주변과 나누”¹⁰⁸는 행위이며, ‘희망의 실체’는 흔적 없이 사라져도 다시 시작될 “우리”¹⁰⁹라는 ‘회색 눈사람’이다. 강하원은 경계·공백을 반복적 기억과

105 위의 책, 53쪽.

106 이한나는 기존 논의에서 강하원이 애도되지 못한 ‘소외된 존재’로 규정되어온 것을 비판하면서, 『회색 눈사람』을 ‘젠더번역’의 관점에서 주목해 강하원의 번역 행위의 상호침투성과 불가능성의 젠더적 의미를 조명한 바 있다. (이한나, 앞의 글, 47~66쪽) 황정화 또한 강하원이 번역하기, 베껴 쓰기, 재구성하기 등의 소수적 글쓰기를 통과하며 혼종적 언어 세계 속에서 자기 언어를 획득하며 절망의 세계를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황정화, 앞의 글, 59~71쪽.

107 최윤, 앞의 글, 53쪽.

108 위의 글, 같은 쪽.

희망의 자리로 재전유하며 공동체에 대한 불온한 욕망을 “감히”¹⁰⁹ 지속한다.

이 같은 ‘우리’의 재발명을 앞서 살펴본 『김미순전』,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과 비교하며 그 역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미순전』이 동구권 붕괴 이후를 변혁운동의 위기로 재현하고,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이 금융위기 이후를 남성 대학원생이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어받으며 가부장 되기에 실패하는 공간으로 재현했다면, 『회색 눈사람』은 민주화 이행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하는 시간일¹¹⁰ 운동의 집단성이 소유권적 개인성으로 재편되는 때로 재현한다. 천정환은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폭발한 민주화의 물결이 세계화와 병진되었음을 주목한 바 있다. 남한이 환태평양-문화정치-체제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글로벌스탠다드에 근접하고 신데탕트의 국면을 여는 동시에 신자유주의화에 동참하는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적 저작권 개념의 재구조화, 과거 공산권 국가로의 시장 확대, 출판운동의 출판자본화가 전개됐다는 것이다.¹¹¹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표된 『회색 눈사람』이 문화운동의 사유화, 저자성, 공동체성의 문제를 깊이 다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회색 눈사람』에서 강하원이 말하는 ‘우리’는 『김미순전』의 영웅화의 명명법(김미순)과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의 ‘퇴장의 미덕’의 반대편에 있는 집합적 작명이다.¹¹² 이는 여성 운동가의 ‘흔적 없는

109 위의 글, 10쪽.

110 위의 글, 같은 쪽.

111 ‘민주화 이행기’가 한국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 안착과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 아래로부터의 변혁이 등장한 때인 동시에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냉전질서가 해체된 역설적인 시기였다고 논한 바로는 다음을 참고. 허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 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2.

112 천정환, 『1980년대 후반 한국 출판문화의 전환—‘세계화’로서의 민주화·자유화』, 『반교어문연구』 62, 반교어문학회, 2022.

113 1980년대 변혁운동에서 ‘이름’의 집단화·공동화로서의 익명성 실험과 그 실천 과정에서 한계를 ‘반(半)익명성’ 개념으로 고찰한 바로는 다음을 참고. 허요한,

노동'을 탈낭만화하여 재전유함으로써 공동체성을 재발명해나가는 행위이자, '강하원'과 '김희진'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3-2. 운동권 여성의 행동양식과 명예회복의 과제: 안이희옥, 『안젤라』

2021년에 출간된 안이희옥의 소설 『안젤라』는 유신시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비혼 노년 여성이자 페미니스트인 '안젤라'의 삶을 통해, 운동권 여성에 대한 '프락치 의혹'의 현재성을 보여준다. 안젤라는 과거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인해 평생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운동을 지속한다. 변혁운동은 그에게 질병과 소송으로 계속되어, 그로 하여금 끊임 없이 거리의 시위에 나서게 한다. 안젤라는 1970~198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에 참여했으며,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금된 후 50년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특히 1991년 강경대 열사 장례식에 찾아온 형사들로 인해 정신질환이 재발해 감시·미행·도청에 대한 불안과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신 헌법 위헌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 참여 중이고, 한미 FTA 반대 농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촛불 항쟁 등 퇴직 후에도 수많은 집회들을 다니며 10여 년을 거리에서 보내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안젤라는 자신이 "평생 시국 일에 말려들고 다니"¹¹⁴는 이유를 유신시대의 기억과 관련짓는다. 자신을 병들게 만든 국가폭력과 싸우는 그에게 '장자연 사건'은 정인숙과 연결되고, IMF와 쌍용자동차 투쟁,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사망 등은 1970~1990년대 운동권의 고문 후유증 및 운동 이후의 열악한 삶과 연결된다. 그녀의 과거는 학생운동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료들과의 관계

『1980년대 전위적 노동자 시인의 한 형상, 박노해』, 『반교어문연구』 54, 반교어문학회, 2020.

114 안이희옥, 『안젤라』, 열린책들, 2021, 18쪽.

를 통해서도 지속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여성들의 ‘명예회복’의 과제이다. 이는 단지 운동권의 상징자본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운동의 과정에서부터 운동 이후,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들을 괴롭히는 ‘프락치 의혹’을 벗는 일을 의미한다.

안젤라는 대학 후배 ‘연화’가 암 투병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그가 “프락치 같아서”¹¹⁵ 병문안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다른 후배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기서 ‘프락치 같다’는 현재 시제는 프락치 의혹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연화가 프락치로 의심되는 이유는 그녀가 졸업 후에 어용 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그의 아버지 또한 용역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젤라는 연화가 결혼 후 단칸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맞벌이로 바빴으며 당시는 여학생들이 취직하기 매우 어려운 때였기에 “어디든 뚫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¹¹⁶을 거라 말한다. 그리고 연화가 어용 연구소에서 노동 쟁의를 일으켰다가 해직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것이 바로 프락치가 아니었다는 증거라면서 그녀를 옹호한다. 안젤라는 노동 쟁의 당시 연화의 모습을 “프락치일지도 모른다는 오해와 비방, 억눌림과 모함에서 일시에 해방되어 기쁜 표정”¹¹⁷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연화가 프락치 혐의를 벗더라도 프락치에 대한 질문은 계속된다. 후배는 안젤라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러면 도대체 프락치가 누구였던 거야? 이제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까놓고 물을게. 언니였어?”¹¹⁸ 여성들의 과거는 현재의 삶으로 증명되며, 이는 프락치 식별의 사후성, 프락치 의혹의 현재성을 말해준다.

안젤라는 대학을 졸업한 지 40년이 흐른 후에도 20대의 증오와 오해,

115 위의 책, 72쪽.

116 위의 책, 같은 쪽.

117 위의 책, 86쪽.

118 위의 책, 73쪽.

불신이 맺혀 있음을 통탄하며, 색출정치가 지속되는 이유를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감시사회’가 ‘불신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안·검열정치, 군부출신 대거 등용, 유신정권 인물 재등용, 계엄령 개정안 발의, 통진당 해산 등 유신시대가 재현되고¹¹⁹ 세월호 참사 이후 색출의 치안이 폭주하게 된¹²⁰ 상황을 환기한다. 이에 안젤라는 1970~1980년대에 ‘여성 프락치’가 만들어지게 된 맥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마디로 우리 중에 프락치는 없었어. 다만 군대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여학생들이라 보안의식이 약하고 조심성이 없어서 정보를 무심코 흘리고 다니는 통에 데모도 제대로 못 하고 사전에 검거됐던 거지.¹²¹

인용한 대목에서 안젤라는 1970~1980년대의 군사주의적 보안의식 바깥에 위치하는 여학생들이 프락치 의혹에 쉽게 노출되었다고 말한다. 군사주의적 국가폭력인 프락치 강요 공작을 방어하는 운동권 문화 또한 군사화되어, 비군사적 행동양식을 보이는 운동권 여성들이 프락치 의혹을 받게 된 것이 운동사회 내 ‘프락치 만들기’의 가부장적 군사주의 맥락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회색 눈사람』의 강하원이 위치했던 ‘여성화된 경계’의 구체적 면모이다. 그 경계가 『회색 눈사람』에서 희망의

¹¹⁹ 박래군·장여경·최은아,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2010.07.29. <https://www.sarangbang.or.kr/oreum/70428>(검색일: 2025.12.29.); 김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잇는 블랙리스트 정체 드러나다』, 『씨네21』, 2017.09.26.; 『기획 유신이 재림한 박근혜 정권 6개월-1. 유신을 재현한 정권구성』,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홈페이지, 2013.08.23. <https://saesayon.org/>(검색일: 2025.12.29.) 『기획 유신이 재림했던 박근혜 정권 6개월 ③ 드러나는 유신본색』,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홈페이지, 2013.08.29. <https://saesayon.org/2013/08/29/12274/>(검색일: 2025.12.29.)

¹²⁰ 유희곤, 박광연, 『단뒤블랙리스트 시작한 ‘세월호’였다』, 『경향신문』, 2017.01.11.

¹²¹ 안이희옥, 앞의 책, 73쪽.

자리로 재맥락화됐다면, 『안젤라』는 그곳을 명예회복이 필요한 위치로 해석한다.

여성들에게 덧씌워진 프락치 혐의는 운동 이후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붙는 낙인이 된다. 연화는 죽기 직전 안젤라에게 전화해 말을 잊지 못하고 통곡한다. 안젤라는 연화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통곡만 남기고 갔는가 자문한다. 그리고 아내의 유고를 정리해 행장(行狀)을 쓰려는 연화의 남편에게, 어용 연구소에서 노동 쟁의하던 시절을 부각하여 생애사를 쓸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안젤라는 연화의 발화되지 못한 유언을 프락치 의혹에 대한 명예회복의 과업으로 해석한다. 그러한 여성의 명예회복은 운동을 자원화·영웅화하는 기획이 아닌, '과잉된 자의식'으로 경직된 일상을 회복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왜 옥수수가 그 집들로 잘못 배달됐던 걸까? 교묘한 음모를 꾸미는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유신 말기에 끌려갔던 것처럼 커다란 시국 사건이나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저항 운동을 무화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보기관의 기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 왜 울리어나가 나를 경찰에 고발했을까? 포상금을 노린 동네 사람들과 짜고 모함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막연히 일상이 무섭고 의심스러웠다.

1979년 4월 안젤라는 지난 6개월 동안이나 미행당했다는 것을 구금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평범한 일상 뒤에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기관원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돈에 매수된 이들의 거짓 증언에 얼마나 놀랐던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연행됐던 기억은 끊임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 몸이 아플 때, 때마침 일상에서 불미스러운 헛소문이 돌 때, 이웃이나 지인들로부터 엉뚱한 모함을 당할 때, 시국 사건으로 신경이 날카로울 때 이런 증상에 시달리곤 했다. (중략) 따라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고,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잡혀갔다 나온 이후 안젤라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생활 전

반에서 결벽증이라 할 정도로 조금의 거짓말도 못 했다.¹²²

안젤라는 스스로 영웅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역경을 헤치며 살아온 극기의 삶, 양심, 정의감, 유능함, 인간미 등에 대한 자긍심을 반복적·직설적으로 발화한다. 그녀는 자신이 “자의식, 자기애가 강하”¹²³고 자기 의로움이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인용한 글에서처럼 잘 못 배달된 옥수수 한 자루에도 극도의 불안에 시달린다. 1970~1980년대 운동권 여성들의 명예회복의 과제와 자기 정당성의 끊임없는 증명에의 필요는 국가와 운동사회의 ‘프락치 만들기’가 형성한 결벽의 습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젤라가 제안한 연화에 대한 애도인 여성 “생애사”는 ‘행장’, ‘운동사’, ‘전기’의 일관적·규범적 서사로부터 미끄러지는 여성서사이다. 그것이 여성의 자기증명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증명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연화의 노동 쟁의가 프락치 의혹의 해명이 아닌 여성의 운동가 자의식의 ‘복잡한 기쁨’과 ‘과잉된 해방감’을 드러내는 글쓰기로 재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젤라는 연화의 가족이 아니기에, 행장 쓰기는 남편의 몫이 되었고, 남편에게 맡겨진 글쓰기는 안젤라와 여성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행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죽음 직전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질병과 눈물로써만 표현되었던 프락치 만들기의 사회적 고통은 가족을 넘어 국가와 운동사회 단위에서 다뤄야 할 성질이기 때문이다. 『안젤라』는 가족이 그러한 사회적 대응을 제한하는 범주로 기능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122 위의 책, 160~161쪽.

123 위의 책, 173쪽.

4. 나가며: 문학의 기억과 색출정치

‘프락치 만들기’의 색출정치는 오늘날까지 운동사회 안팎에서 지속되어온 사회적 문제이다. 학생운동이 약화된 후 대학에서 ‘비권’을 내세운 학생자치 그룹들은 ‘순수한 학생’에 반대되는 ‘불순분자’인 운동권과 정치세력을 색출하여 퇴출시키는 전략을 취해왔고, 이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의 ‘알권리’라는 소비자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대학 내 색출 논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등의 색출정치와 신자유주의적 소비자주의가 결합한 결과다. 한편, 일부 여성 시위에서 나타난 외부인, 운동권, 노조원,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색출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전술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안전 시스템 부재를 경험한 여성들이 사회를 개별적으로 통제 가능한 폐쇄적이고 협소한 단위로 상정하면서 만들어진 자구책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반복되는 여성살해, 교제폭력, 교제살인, 디지털 성폭력을 재난참사로 대면하고, 스텔라 데이치호 참사, 코로나 팬데믹,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참사, 기후재난과 전쟁에 연루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며 ‘안전’을 새롭게 감각·사유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스트 색출, 군대와 팬데믹 시기의 성소수자와 중국인에 대한 색출은 색출정치가 가부장적·이성에 중심주의적·인종주의적 통치 전략임을 드러낸다.

본고는 이처럼 현재적 쟁점인 색출정치가 ‘프락치 만들기’라는 오랜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고찰하였다. 여성을 주변화해온 운동사·문학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고는 그 구조의 구체적 사례로서 문화적·담론적 차원의 ‘여성 프락치 만들기’를 분석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프락치 재현은 1980년대와 달리 결정적인

밀고, 용서 불가능성, 처벌, 프락치 자리와 시비의 지속을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이 변혁운동에 대한 기억정치의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내면화하며 남성성의 위기에 대응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비판하며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을 해부하는 과정에서 재현된 ‘프락치의 젠더’의 발로였다. ‘여성 프락치 만들기’의 문학적 재현은 동구권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운동의 위기, 농촌위기, 금융위기를 ‘남성성의 위기’로 치환해 여성에게 외주화하거나 남성이 개인적으로 떠안으며 남성성을 재구축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또는 운동사회에서 여성의 경계적 위치를 역사화하여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넘는 공동체성을 환기하고, 여성의 명예회복 과제를 쟁점화하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 같은 재현은 문학의 기억과 색출정치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김미순전』은 여성 프락치의 영웅화를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를 외주화하고 노조를 남성연대 조직으로 재정체화한 문학적 기억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은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기억이 금융위기 이후 개인화된 가부장성 수행을 위해 여성 프락치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드러냈다. 『회색 눈사람』은 여성 프락치의 경계적 위치에 대한 기억으로 운동 안의 노동 문제를 소환하는 동시에, 소유권적 개인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공동체성의 재발명을 도모했다. 『안젤라』 또한 운동권 여성 프락치의 위치를 기억하며 여성의 명예회복 과제의 현재성과 실현의 곤경을 드러내고 여성서사의 조건을 재고하게 했다. 이러한 문학적 기억들의 한계를 성찰하고 의의를 심화하여, 경계적 위치에 관한 여성주의적 기억정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영근, 『김미순전』, 실천문학사, 1993.
안이희옥, 『안젤라』, 열린책들, 2021.
이기호,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이기호 외,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2010』, 문학의숲, 2010.
최윤, 『회색 눈사람』, 『회색 눈사람』, 문학동네, 2017.

2. 논문

- 강동호·강지희·김나영·송종원, 『이야기의 인력, 떠오르는 여백—2010년 봄의 한국 소설』, 『문학동네』 63, 2010년 여름호.
고은새, 『최윤 소설 연구: 여성성 너머의 글쓰기』,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5.
김예림, 『우정 혹은 관계재의 파괴—학원자율화 시기의 학생운동과 ‘프락치’라는 폭력』, 『사이』 3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5.
김윤식,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김창남, 『80년대의 문화와 문화운동』, 『문학과 사회』 2(4), 문학과지성사, 1989.
김태연, 『사회변화에 따른 성매매 양상의 변화』, 『여성과 인권』 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김혜신, 『후일담 문학과 상속의 정치: 1990년대 한국문학의 재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5.
박정근, 『박영근의 『김미순전』에 나타난 들뢰즈적 “정동”의 연극성』, 『영주어문』 24, 영주어문학회, 2012.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2), 한국사회학회, 2015.
_____,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혹향락산업과 인신매매』, 『여성학논집』 33(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6.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소영현, 『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74,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 양가영, 『1990년대 주류 소설에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의 의미－최윤의 『회색 눈사람』과 백민석의 『내가 사랑한 캔디』를 통한 비운동권 소설과 노동 문학의 관계에 대한 재고』,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학회, 2023.
- 엄혜진,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 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유승희, 『최윤 소설의 역사기억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유예현, 『(불)가능한 전기적·자기서사로서의 최윤 소설－전언의 형식과 2인칭 서술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69, 반교어문학회, 2025.
- 이영미, 『1970년대, 1980년대 진보적 예술운동의 다양한 명칭과 그 의미』, 『기억과 전망』 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 이한나, 『‘젠더번역’ 관점에서의 최윤 소설－최윤, 『회색 눈사람』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 이혜령,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목가적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돌아보며』, 『여성문학연구』 3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 임희현,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4.
- 장준영, 『최윤 소설의 타자 인식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22.
- 정우경, 『여성 작가의 ‘역사 쓰기’와 ‘돌봄’의 전망－최윤의 19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 정원옥, 『1980년대 문화운동에서의 공동체담론과 오일 광주』, 『문화/과학』 90, 문화과학사, 2017.
- 정재원, 『세계화 시대의 성매매관광』, 『여성과 인권』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 조대희, 『노동자 출신 시인의 시세계 변모 양상 연구: 박노해·박영근·백무산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8.
- 조순경,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생산직 여성노동력 부족현상을 중심으로』, 『여성』 3, 한국여성연구소, 1989.
- 조연정, 『후일담과 여성－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과 최윤의 소설』, 『대중서사연구』 63, 대중서사학회, 2023.
- 천정환, 『1980년대 후반 한국 출판문화의 전환－‘세계화’로서의 민주화·자유화』, 『반교어문연구』 62, 반교어문학회, 2022.
- 최태섭, 『한국, 남자는 억울한가? 청년 남성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인식, 그리고 젠더 정치』, 『안과밖』 59, 영미문학연구회, 2025.
- 허민, 『『노동해방문학』과 노동 재현의 규율』,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
- _____,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2.

- ____, 『후일담의 역사와 ‘운동권’의 글쓰기』, 『구보학보』 37, 구보학회, 2024.
- 허요한, 『1980년대 전위적 노동자 시인의 한 형상, 박노해』, 『반교어문연구』 54, 반교어문학회, 2020.
- ____, 『박노해 민중시의 전개와 전위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4.
- Ch'oe yun · Jeong Wookyung, “Dynamiques féminines dans la littérature coréenne des années 1980-1990”, *Keulmadang* n°7, 2023, 10.

3. 단행본

- 김영수 · 김원 · 유경순 · 정경원, 『전노협 1990-1995 - 전노협의 창립에서 해산까지』, 한내, 2013.
- 민병래, 『강북진 공동기획, 『파괴된 청춘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이 남긴 상처』, 원더박스, 2025.
- 박찬수, 『NL 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인물과사상사, 2017.
- 강제징집 녹화 · 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진실 · 기억 · 책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을 말한다』, 강제징집 · 프락치 강요 공작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국회심포지엄 자료집, 2025.11.19.
- 전희경, 『오빠는 필요 없다 -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2008.
- 정희진,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 교양인, 2023.
- 조혜영, 『그 길이 불편하다』, 푸른사상, 2024.
- 주디스 헬버스탐, 유강은 옮김,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 지젤 사피로, 원은영 옮김,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이음, 2025.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0~2025 3권 인권 침해 사건』, 2025.
- 최태섭 『한국, 남자 -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 은행나무, 2018.

4. 기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신문』, 『씨네21』, 『여성신문』,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일요신문』, 『조선일보』, 『주간경향』, 『한겨레신문』, 『한겨레21』, 『한국경제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홈페이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카이브

:: 국문초록

이 글은 변혁운동에 대한 기억의 문학적 재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문학에 재현된 ‘프락치’의 젠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프락치 강요 공작’과 그에 대한 방어로서의 운동사회 내 의심·단속·폭로 문화가 결합된 ‘프락치 만들기’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 그 문학적 기억의 의미를 밝힌다. 국가의 프락치 공작은 대학·노동·종교계를 대상으로 자행된 연대 파괴이자 인권 침해였으며, 군사주의적 남성성의 상징체계로서 작동한 젠더 폭력이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프락치는 국가뿐 아니라 운동사회에서 위기 관리를 위해 재생산되는 문화적 위협으로 기능했다. 본고는 이 같은 프락치 만들기의 색출정치가 변화하는 정세와 맞물려 거듭 기억되고 현재화돼온 역사성을 논하기 위해, 변혁운동의 기억과 더불어 ‘여성 프락치’를 재현한 최윤의 『회색 눈사람』(1992), 박영근의 『김미순 전』(1993), 이기호의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2009), 안이희옥의 『안젤라』(2021)를 다룬다. 박영근의 시가 199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변화를 재현하며 여성 프락치를 주문한 바를 동구권 붕괴 이후 노동운동 위기론과 관련하여 논한다. 이기호 소설이 남성 노동자와 여성 프락치, 여성 학출의 역학관계로써 노동운동을 기억하며 금융위기 이후 청년남성의 에토스를 모색한 바에 주목한다. 최윤과 안이희옥의 소설에서 운동권 여성 프락치의 ‘위치’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비판하는 여성의 기억으로 역사화된 점을 조명해, 운동 안의 노동과 공동체성, 운동권 여성의 행동양식의 문제와 명예회복의 과제를 규명한다. 이로써 프락치 만들기와 그에 대한 대응의 역사성을 성찰한다.

핵심어: 프락치 강요 공작, 프락치 만들기, 여성 프락치, 신자유주의, 색출정치

∴ Summary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Woman Infiltrator” and the Historicity of Infiltrator-Making Since the 1990s

Jung, Hyejin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dered dimensions of the “infiltrator”(p’ŭrakch’i) as represented in Korean literature from the 1990s to the 2020s, a period when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ransformative social movements began to emerge in earnest.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 of “making infiltrators,” a process produced by the conjunction of the state’s coercive deployment of infiltrators and the resulting culture of suspicion, surveillance, and exposure within activist communities, while elucidating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memory regarding this process. The state’s coercive use of infiltrators constituted both a destruction of solidarity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ithin university, labor, and religious movements, while also manifesting as gendered violence that operated within the symbolic system of militaristic masculinity. Under these conditions, the infiltrator functioned not only as an instrument of the state but also as a culturally reproduced threat used for crisis management within activist communities. To discuss the historicity through which the “politics of sifting” inherent in this process has been repeatedly remembered and actualized in relation to shifting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analyzes works by Choi Yun, Park Young-geun, Lee Gi-ho, and Ahn Lee-hee-ok.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ecurring figure of the “woman infiltrator.”

keywords : Coercive deployment of infiltrators, Making infiltrators, Woman infiltrator,
Neoliberalism, Politics of sifting

이 논문은 2026년 1월 1일에 접수되었으며, 2026년 1월 31일에 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